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매체형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11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차례

- 3p **골목**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최성수
- 6p **우리 동네 성북동의 길목, 동소문동 이야기**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 골목기행 / 박진하
- 34p **모르모트의 반응**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 우리동네 문학살롱 / 전광용
- 50p **모(뽀)하는 모임인지 알게 될 때까지 가보고 싶어요**
주민 기고 / 육끼, 이지
- 54p **작지만 행복한 집 - 성북동 소행성 이야기**
주민 기고 / 편성준
- 64p **돈암초등학교 33회 졸업생들의 그때 그 시절**
주민 인터뷰 / 박진하
- 84p **성북동에서 갤러리를 하는 이유**
성북동 문화 아지트 / 아트스페이스 H
- 90p **소나무 아트스튜디오, 서울미래유산 - 윤중식 가옥**
우리 동네 아트살롱 / 윤가현

- 100p **푸른시간 - 이영은 작가**
문화공간 17717 한장 스케치
- 104p **문인들의 커뮤니티로서의 성북구**
우리 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 김준현
- 112p **<이사, move into somewhere> : 고사리 작가**
우리 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 차정미
- 120p **디자인 된 커피를 파는 카페 디터틀입니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박병찬
- 127p **사용승인 불명**
남다른 시선 / 이준호
- 128p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편집 후기 / 장영철
- 130p **성북동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회원 모집 / 편집부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골목

최성수

나뭇잎에 길이 있다
큰 길은 잎 뿌리에서 머리까지 넓다
큰 길 가로로 작은 길들이 퍼져 있다
길은 나뭇잎을 나뭇잎답게 만든다
큰 길보다 작은 길이 더 곱다

골목은 큰 길에서 마을 끝으로
실핏줄이 되어 흐른다
굽이지고 땀들며
흘러 내리고, 흘러 오른다
골목에서 마을은 시작되고
골목에서 마을은 저문다

골목이 있는 마을은
햇살 아래 나뭇잎처럼 빛난다

성북동은 나뭇잎이다



—
최성수는 시인이며 청소년 문학 작가이다. 그동안 시집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 <천 년 전 같은 오늘 하루>, <꽃, 꽃잎>을 냈으며, 청소년 소설 <비에 젖은 종이 비행기>, <꽃비>, <무지개 너머 1,230마일>을 내기도 했다. 성북동에 50년을 살다 지금은 고향인 강원도 안흥 보리소골로 귀향하여 고향과 성북동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북동이 사람들의 행복한 꿈을 담아내는 터전이기를 꿈꾸고 있다. 본지의 편집위원이자 성북동천의 고문이기도 하다.

우리 동네 성북동의 길목, 동소문동 이야기

박진하

동네 입구 소공원과 한·중 위안부 소녀상

우리 부부가 운영하는 디미방 식당이 성북동에서 동소문동으로 옮겨 감에 따라 그 쪽 마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갔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동소문동이라고 해도 그 지역 주민의 행정이나 민원 처리는 성북동과 동일하게 성북동 주민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나 어찌되었던 동소문동이라는 마을 명을 가진 지역임에는 분명하다.

그와 동시에 이 지역은 성북동에서 도심지로 나가거나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할 동네 어귀 같은 지점이다. 산촌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들러 가는 동구나무 숲이 있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출퇴근 통로이기도 하다.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도 그 성북대로를 걸어 오늘도 출근한다. 적어도 하루 두 번씩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다.

성북대로의 동쪽에 있는 인도로 삼선역을 향해 걸어간다. 현대 서비스 센터 앞을 지나가노라면 도로 중앙의 가로수가 오가는 방향의 차선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버짐나무라는 우리의 고유의 한글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플라타너스라고 부르는 그것들이다. 지금은 은퇴한 세대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케 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이 나무들은 그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많이 식재되던 가로수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둘러싸는 나무들도 십의 아홉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또한 나무껍질이 희어 짙은 갈색 나무 등지에 붙어 있는 모양이 그들이 어릴 때 영양 상태가 부실하여 생기는 피부병의 일종으로 바리깡으로 깎은 까까머리 위로 하얗게 번지는 버짐과 같다 해서 이리 불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외래어로 통칭하게 된다.

지난해에 수모를 겪고도 살아남은 버짐 나무는 위 등치가 뭉뚱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생명력을 기반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사회생으로 되살아난 두 그루의 가로수는 자기를 지켜준 주민들의 출퇴근길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로수는 여기를 기점으로 끝이 나고 도로 양편으로 자리 변경을 하게 된다.

드디어 성북동과 동소문동의 경계지점을 만나게 된다. 이른바 한진 아파트 입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아파트로 향하는 도로 양쪽으로는 느티나무가 나란히 줄을 서서 오가는 행인을 반긴다. 그 건널목을 건너 지하철역을 다가가게 되면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중앙에는 샛갯지붕 형식으로 만든 나무 정자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의자들이 둥근 반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뒤로는 소나무 등으로 조성된 도시 숲이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인 1940년 전후에 추진되던 지구 개발 계획에 의거하면 동소문동과 돈암동 일대에 11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곳이다. 그러니 이 공원은 비록 작으나 역사가 있는 장소인 것이다.

여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 여성들에게 행한 잔혹한 성범죄를 증언하는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특이하게도 이 소녀상은 중국인 소녀상과 함께 나란히 새겨져 놓여 있다. 이런 한·중 평화의 소녀상은 2015년 10월 28일에 세워졌는데,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이 한국인 소녀상,



오른쪽이 중국인 소녀상이다. 이 소녀상은 미국 LA 외곽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본 두 중국인 예술가가 한국인 작가 부부에게 제안해 만들어졌다. 즉 한국인과 중국인 두 나라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기존의 다른 장소에 설치한 한국인 작가의 소녀상 옆에는 항상 빈 의자가 있는데, 여긴 중국인 소녀상이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빈 의자가 하나 또 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희생자들을 위한 자리라 한다.

중국인 소녀상은 땀은 머리에 단호할 정도로 팔을 걷고 주먹을 강하게 쥐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인 소녀상이 차분하고 정적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몸이 가늘고 굴곡이 더 많다. 한국인 소녀상 뒤에는 다른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그림자가 있고, 중국인 소녀상 뒤에는 의자를 향해 걸어온 발자국들이 있다. 왜 발자국이 있는지는 빈 의자 뒤 바닥에 새겨진 다음의 글이 알려 준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친구를 찾아와 옆에 앉았습니다. 있던 자리에선 말을 못하고 숨죽여 왔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소곳하면서도 진지하고, 잔잔하면서도 진실 되게 이야기하는 친구와 같이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제 함께 하려 합니다.”

동소문동 마을 기행의 시작

이를 뒤로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지하철역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 오른 편으로 넓디넓은 로터리가 보인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자리에 삼선교가 세워져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 성북천이 흐르고 있었다. 삼청각 뒤쪽 북악산에 시작한 성북천은 성북동을 가로지르며 흘러 내려와 이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제 당시 도시 계획에 의하면 이 도로는 서울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간선도로이었던 것이다. 서울의 북쪽으로 가는 관문이었던 동소

문을 해체하고 창경궁 앞과 지금의 삼선역과 미아리 고개를 잇는 큰 도로를 만들면서 삼선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때 당시만 해도 성북천은 밖으로 노출된 상태로 흐르고 있었으며 서울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와 만나게 되면서 교각이 건립된 것이다. 그것이 삼선교이었던 것이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성북천은 먹고 살기도 바쁜 궁핍한 시절, 환경보호라는 개념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고 생활 쓰레기와 악취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정월 대보름이면 지불놀이를 하던 우리들의 전통 놀이가 행해지던 행사장이었던 것이다. 즉 강통 속에 불과 나무를 넣어 빙빙 돌리던 그 놀이를 이곳에서 행해졌다 한다. 삼선교 옆에 계단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성북천 옆으로 이어진 길로 내려갈 수 있었다. 아이들은 놀이의 천재들이다. 이런 시궁창을 재미있는 놀이터로 바꾼 것이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삼선동 주변의 성북천을 보면 예전의 삼선교와 성북동을 가로지르는 그 냇가의 정경을 그려 볼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북동 주민의 주된 동선인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 나가면 농협이 있다. 사실 그 농협은 성북동 깊숙이, 즉 지금의 양리 동물 병원에 위치하던 곳으로부터 옮겨 온 것이다. 큰 도로에서 7번 출구를 나와 왼편으로 꺾어 들어가면 이른바 본격적인 동소문동으로의 골목 기행이 시작된다.

많은 성북동 예술인들의 모임터가 되고 있는 맥줏집, ‘7번 출구’를 지나 길을 건너면 왼편으로 가압장이 보인다. 가압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가압펌프장’ 또는 ‘가압장’이라고 하는데, 수돗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려면 가압 펌프를 사용해서 물에 압력을 가하여 높은 곳으로 보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었다. 이젠 그 용도가 폐기되어 그림이나 여러 예술 작품 등을 전시하는 작은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경사가 급해지고 느긋한 대각선 형태의 골목길을 만나게 된다. 아침이면 차량이 쏟아져 내려와 번잡한 도로가 되기도 하는 그곳이다. 이 비탈길 따라 올라가 평지에 이르면 오른편엔 현대식 가옥이, 그 반대편에는 커다란 벽체가 있어 소공원의 뒤편에 위치한 조그마한 숲과 맞닿아 있다. 그 벽면에는 이른바 거리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래피티(graffiti) 방식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알파벳 글자와 구상화 형식의 벽화가 우리를 반긴다. 요즘 도시 속 담장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에 있는 것은 화려한 색상의 대비가 선명한 것이 좋아 보인다. 또 다른 벽면에 그려진 푸른 하늘빛과 붉은 저녁놀이 어우러져 있는 황혼과 커다란 달 항아리 실루엣은 볼수록 호감이 생긴다.

왼편으로는 공동 주택이, 오른편으로는 한옥 형태의 집이 남아 있는 것을 보니 이전에는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 밑으로만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 기존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지역에 서는 대단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러기에 획일적이라기보다 각자의 편리에 따라 이리 변경하고 또 저리 고쳐서 그야말로 어지러운 정도의 다양한 가옥의 집합군락이 된 것이다. 그에 비해 채마밭으로 이용되거나 푸른 나무숲이 있던 윗동네는 민가가 거의 없었기에 근대화 물결 속에서 싹 밀어내고 새로운 집단 가옥을 건립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니 비교적 고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나 번듯한 빌라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던 마을이 동소문동인 것이다.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산 위 채마밭을 지나다가 거름 밭을 밟아 온통 오물을 뒤집어쓰고 그 속에 빠진 고무신을 찾을 수 없게 되는 낭패스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이젠 그런 채마밭도 푸르른 숲도 사라져 버리고 대형 아파트나 공동 주택가로 변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청룡암과 바둑판 모양의 골목길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한 블록을 지나다보면 청룡암이라는 암자를 만나게 된다. 솥을 대문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행랑채를 배치한 양반가의 가옥이다. 그런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니 행랑채와 본채가 길게 이어진 'T'자 형 기와집이다. 본채 왼편에 있는 칠층석탑이나 창건 기념비가 없다면 일반 가정집처럼 보인다. 이 암자도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당초 이 청룡암은 현재 삼청각이 있던 위치에 있었다. 당시 최고의 세도를 누렸던 안동김씨 가문의 영의정에 의해 1853년에 창건된 것이다. 대웅전과 요사 채를 갖춘 제법 큰 사찰이었으나 당시에는 그곳이 숲이 우거지고 짐승이 오가는 깊은 산속이었다고 한다. 한 때 춘원이 여기에 머물며 작품을 쓰기도 했단다.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그 암자가 이렇게 변해 이 곳으로 옮겨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추억담을 읽어보면 그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끌려 이곳까지 왔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하며 사월 초파일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신도들로 가득했다 한다.

한편으로는 삼선 중학교의 축대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도로를 가운데 두고 병치되어 있다. 이처럼 동소문동의 마을길은 모두 일직선이다. 대체로 성북동의 마을길과 같은 미로가 없는 편이다. 이쪽으로 가면 큰 길이 나오겠지 하고 갔다가 곧 낭패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인 곳이 성북동이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모든 골목길은 직선과 격자로 도시화 계획에 의해 잘 정돈된 마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까닭이 있다.

이 지역은 일제 당시에 도시화 계획에 의해 정돈된 공간이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주택 단지로 개발된 지역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신도시하면 분당이나 일산을 이야기 하겠지만 가장 먼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 동소문동을 포함한 돈암 개발 지구이었다.



개발 시점에는 평산 목장이라는 초목 지와 그 주위에 토막을 짓고 살던 빈민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 당시의 이 곳 정경을 기록한 문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내의 혼잡함은 찾아 볼 수 없는 한적하고 공기 맑은 지역이다. 새로 닦은 아스팔트 큰 길, 평지는 드문드문 소나무가 서있으며 야외이기는 했으나 올라가 놀기 좋은 나지막한 산, 그 산 밑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곱게 고이는 맑은 우물, 살기도 좋으려니와 걷기도 더 좋은 곳이다. 길의 흠까지도 깨끗한 흰 모래, 동네 전체가 햇빛을 듬뿍 담아 언제나 밝은 곳이다.’

이런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내려가면 도심지로 나갈 수 있는 버스가 다니는 신작로가 있었다. 당시로서는 무엇보다 매력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전차가 지상으로 다니고 있었다. 지금의 삼선역에 전차역이 있었으며 이 전차역은 다음 역인 미아 중점까지 통행하는 남북관통 전철 노선에 속해 있었다. 그야말로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최적지였던 것이다.

다만 이곳에 살던 토막민이라고 지칭했던 도시 빈민층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들은 지면을 파서 그 단면을 벽으로 삼거나 혹은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거적 등으로 벽을 삼고 양철이나 판자로 지붕을 만든 원시주택, 즉 토막에 거주하고 살았다. 이들에 대한 철거는 1939년에 추진되기 시작하여 7월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00여 호를 경관 30여명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인부 수십 명에 의해 일시에 철거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토지를 분양하고 새로운 건물은 건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모든 골목길은 직선이고 장방형으로 정리된 도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경성 총독부는 내선 일체라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 신도시에 일본식 주택과 우리의 한옥을 50:50으로 하여 건립하게 하여 한국

인과 일본인이 함께 살도록 하려 했으나 이런 정책은 실패했다. 전체의 98.6%가 우리 한국인이었으니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한옥 단지가 되어 버린 셈이다.

이렇게 건설된 신도시를 “한 발 바깥으로 나가면 도로에 면하고 집안으로 들어서면 본래 산이 지닌 모습을 정원을 통하여 만끽할 수 있고, 밖으로 바라보면 이웃들이 녹지에 둘러싸여 있고 거주자들이 편히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지역이 이곳인 것이다. 그래서 길은 곧고 골목은 격자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도시로 기획되고 개발되는 과정에서 신설된 학교가 있었으니 그것이 돈암 초등학교이고 쇼펩 편의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돈암 시장이었다. 지금도 대규모 신시가지를 개발할 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학교 시설이고 쇼펩 등의 편의시설인 것처럼 당시도 그러했다.

백사 선생과 이웃 마을

다시 걸어 한 블록을 지나면 끝나는 지점 쯤 ‘양한재(養閑齋)’라는 양옥집이 보인다. ‘양한재’라 ‘몸과 마음을 닦으며 한가로움을 즐기는 집’이라는 의미일까? 작은 격자 철망 대문 뒤로는 등나무 넝쿨이 보인다. 그것이 자라 넝쿨 터널을 이루고 있다. 그 뒤로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집은 네모난 골뚝을 중심에 두고 좌우 대칭되는 붉은 기와지붕을 가진 양옥인 것이다. 그것도 완전 대칭이 아닌 왼쪽 지붕은 겹치마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른 쪽은 홑 지붕 형식을 하고 있어 약간의 파격이 느껴진다. 측면은 경사가 급한 또 다른 골목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탈을 활용하여 3층으로 건립된 건물이다. 정면에서 보면 단층이나 측면에서 보니 3층인 것이다.

다소 특별해 보이는 이 건물이 위치한 이 장소가 소설가 겸 국문학자로 활동하신 전광용 선생의 집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60년대 초에 성북동을 거쳐 이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그의 집을 가려면 꽤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으며 이층 양옥과 단층 기와집이 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와 영산홍이 있었다 한다.

그는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신헌민이며 다른 사람들 보다 늦게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그곳에서 교수가 되었다. 그러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입선하였으며, 1955년 『조선일보』에 「흑산도」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1962년에는 단편소설 「꺼삐딴 리」로 제7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회장,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창작과 문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하셨다.

대표작 ‘꺼삐딴 리’의 STORY

꺼삐딴은 CAPTAIN의 노어식 표현이다. 의사인 주인공은 식민지시대에는 철저한 친일파였으나 해방 직후엔 친소파로 돌변한다. 이북에 있던 그는 해방이 되자 재빨리 노어를 배웠고 또 소련군 장교를 치료해서 환심을 산다. 그러나 1·4후퇴 때 월남해서는 어제까지의 친소파가 갑자기 친미파로 돌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해 가면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국무성 초청을 받기 위한 교섭을 벌인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언제나 시류에 편승해서 현실적 영화를 누리는 카멜레온 같은 인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상징하는 노예적 인간상을 고발하고 동시에 그러한 인간상의 배경이 되는 한국민족의 비극적인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선생과 관련된 일화는 많다. 사회 풍자적 소설을 썼던 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구사하던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도 있다. 1956년 대통령의 양자이자 실권자의 아들인 이 강석이 부정편입 논란 속에 서울법대에 입학해 있을 때이었다. 국문과 교수였던 선생은 시험 때 그의 고교동문들이 조직적으로 그를

돕는 것을 보고, 호통과 함께 내쫓았다. 그 이후 그는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육사로 재입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이강석이 어떤 인물인가? 그의 이름만 대어도 별별 떠는 그런 시대이었다. 그를 사칭하며 벌인 사기사건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 그가 학교를 그만둔 그 다음 해인 1957년, 경주에서 갑자기 자신이 이강석이라고 사칭하는 청년이 나타났다. 이 청년은 경주 경찰서에 들어와 “아버지의 밀명으로 풍수해 피해 상황과 공무원들의 기강을 알아 보려 왔다”고 말했고, 그 소식에 경주 경찰서장은 물론 경주 군수까지 버선발로 뛰어와서 새파랗게 어린 청년에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왕림하시니 광영이옵니다.”라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극진히 대접했다. 경주 경찰서장은 이 청년을 극진히 대접하고 경호차까지 내서 경주 일대를 둘러보게 했다. 그 다음날에는 경주 옆의 영천으로 갔고, 영천에서도 영천 경찰서장을 비롯한 높으신 분들이 극진하게 대접했다. 이어 안동으로 이동해서 지역 유지들을 만났는데 지역 유지들에게 수재의연금 좀 내라고 눈치를 주자 알아서 갖다 바쳤다고 한다. 이 청년은 사흘째 되던 날,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에 도착했다. 경북도경 사찰과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했고 도지사 관사에서 머무르게 했다. 그러다 그 정체가 드러나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사칭하고 다닌 지 3일만의 일이었다.

이런 세월을 지낸 선생은 ‘주막(酒幕)’이라는 동인을 구성할 만큼 술을 즐겨 마셨다 한다. 술자리에서 흥이 나면 우렁찬 함경도 사투리를 쓰며 고향 민요를 부르곤 했다.

여기에서 우측으로 돌아 내려가면 경사가 가파르다. 좌우로 공동 주택들이 나란히 있다. 이는 이 마을이 근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래도 예전의 흔적은 잔존해 있는 법이다. 빨간 벽돌 담장 너머로 품격 있는 한옥의 측면이 보인다. 담

장이 높아 그 내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다. 다만 정원수로 가꾸고 있는 향나무가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랑채와 본채를 분리하는 정형적인 한옥 배치 구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채의 기둥에는 주인이 좋아하는 한시나 문구를 새긴 주련들이 보이고 그 지붕은 팔작지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대문을 향해 ‘ㄷ’형태를 띠고 있었다.

한쪽 모퉁이에 위치한 그 집을 뒤로하고 차로로 나와 걷다 보면 ‘한국요가 연수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오래 전 매일 같이 찾아다니던 그 수련원이다. 요가와 명상을 배우기 위해 몇 년이고 다니던 수행처이기도 하다. 그를 지나면 수제 만두로 유명한 만두집이 있고 이어 염색 전문점도 나타난다.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전문점이라면서 비전문가들이 하는 염색방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자부심이 대단한 이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멀리서 오는 단골들이 많은 걸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싶다.

그 앞에 있는 ‘돈가래(豚家來)’는 이름부터가 보통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집이다. 언젠가 주인장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맛있는 고기를 파는 주점을 해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즐겁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 쯤은 길게 시간을 내어 스키 투어를 다녀오신다고 한다. 운영 철학이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내는 그 마음으로 서비스하기에 늘 많은 사람이 모여드나 보다.

드디어 삼선 중학교로 가는 큰 길을 만나는 교차로에 이르게 된다. 무슨 까닭에 차선이 여기에서 꺾여 ‘T’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방향을 전환해 하고 때가 되면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길을 따라 비탈길을 올라간다. 거의 학교 앞까지 다다르게 되면 우아한 공동 주택을 만나게 된다. 5층 건물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은 붉은 벽돌로 만들어져 있

다. 빨간 색과 대비되는 하얀 베란다, 부드럽게 구부린 유리창과 더불어 전체적인 벽체도 우려한 곡면으로 몇 번에 걸쳐 변화를 주고 있어 보는 이를 편하게 한다. 공공 주택이라도 이 정도라면 작품이다 싶다. 여기쯤 가톨릭 신부들이 거주하는 사제관이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측면이나 후면을 보면 보다 건축 면이 단순해진다. 엘리베이터가 있음직한 높은 ‘ㄱ’ 침탑 중심으로 붉은 계통의 슬레이트 지붕을 한 건물을 양편으로 붙여 두었다. 좌우 대칭이 아닌 한 쪽은 한 칸만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몰아붙이는 방식이다.

아름다운 추억의 마을 그리고 돈암장

여기에서 조금 더 오르면 삼선 중학교이다. 정문을 향하다 옆으로 내려다보면 이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하지만 고층 건물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탁 튀인 전망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상상으로 볼 뿐이다.

서울을 지키는 주산, 즉 북악산이 동으로 흘러 북악 스카이웨이를 따라 내려온다. 그러다 남쪽으로 하나의 지맥을 흘러 보낸 것이 낙산이고 이는 성북동의 서쪽을 보호해 주는 우백호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다 개가 쭈그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구준봉에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지맥이 있으니 그게 성북동의 좌청룡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산세인 것이다. 이 산세는 가장 먼저 생태 숲이라는 도시 속 자연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한진 아파트와 홍익 중학교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산은 우리 성북동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마을의 공기가 맑은 것은 성북천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푸른 숲이 있기에 그러하기도 하다. 조금만 다가가면 자연 숲을 거닐 수 있는 건 우리의 기쁨이다. 이 생태 숲은 지나 지맥은 한진 아파트를 가로질러 남으로 내려와 삼선 중학교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성북천이 성북동에서 빠져 나와 삼선교를 지나서 이 지역을 에워싸며 한강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너



푸른꿈·살은생각·영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머로 삼선교라는 지명의 유래를 제공하게 된 옥녀봉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봉에서 한 옥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 신선과 더불어 놀았고 하는 데에서 삼선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앞에 놓인 여러 고층 건물로 인해 볼 수 없지만 예전엔 여기에 서 그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동소문동에 태어나서 자란 작가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에세이 집 ‘놀이의 천국’을 보면 그는 ‘몽마르트의 화가,’ 모리스 위트윌로의 회화 작품들을 삽화로 사용하고 있다. 이 위트윌로는 국내에서는 아직 유명하지 않지만 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간직하고 싶어 하는, 몽마르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엽서 속 풍경들을 그린 프랑스 화가이다. 그는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어린 시절과 추억이 깃든 이 동네의 기억을 위트윌로의 그림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 마을이 북악산에서 흘러 내려온 하나의 산세를 기반으로 한 동네이기에 그렇다. 즉 산에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비탈길을 중심으로 양측에 건물을 배치한 것이 위트윌로의 그림 속 정경과 닮아 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림 속에서 옛 고향, 동소문동을 보게 된 것이다.

경비실을 지나 조금 더 오르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커다란 한옥건물이 보일 것이다. 그것이 그 유명한 ‘돈암장’이다. 지금은 개인 저택으로 되어 있어 그 내부로 들어가 살펴 볼 수 없으니 이 지점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커다란 한옥 본체는 팔작지붕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때부터 권위 있는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지붕형태로 규모에 관계없이 중심건물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개의 지붕면을 앞뒤로 배치하고 측면에는 삼각형의 합각벽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를 길상무늬로 장식했다. 그 후원 또한 넓은 공간으로 노송 등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 집의 풍격을 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이 ‘돈암장’이라는 역사적인 건물이 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기에 기거하면서 붙여진 당호인 것이다.

1945년 10월 16일 맥아더 원수의 전용기로 70세의 노 망명객, 이승만 박사는 105인 사건을 계기로 망명길에 오른 지 34년 만에 귀국하였다. 그는 처음 조선호텔에 머물며 여러 인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이승만 신드롬’에 휩싸였다. 신문들은 그를 ‘건국의 아버지’ ‘우리의 최고지도자’ ‘독립운동의 선구자’ ‘혁명전선의 거인’이라고 호칭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의 삶에 대해 보도했다. 매일같이 이승만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조선호텔로 몰려들었다.

같은 조선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미군정 요인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 해서 옮긴 거처가 이 ‘돈암장’인 것이다. 하루에도 300~600명이 ‘이승만 박사’를 뵙겠다고 몰려들었고, 갓을 쓴 시골노인들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아무 데나 방뇨하는 일까지 있었던 까닭이다. 이 집을 내준 조선 타이어 사장은 광산업으로 치부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집을 빌려준 것은 같은 황해도 출신인 한민당의 장덕수의 부탁 때문이었다. 1938~1939년에 지은 돈암장은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깊은 건물이다. 돈암장의 한옥 건물을 지은 사람은 당대 최고의 대목장이었다. 창덕궁 대조전을 지은 목수의 제자로 무형문화재 74호였던 이 사람은 생전에 “돈암장을 지을 때 쇠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짜서 지었으며, 서까래와 내실 기둥 등은 모두 백양목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건축학과 전문가에 의하면 “돈암장은 가운데에 대청마루가 있고 양쪽 온돌방의 3면을 마루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보아, 궁궐의 침전을 본뜬 형태다. 조선왕조가 망한 후 궁실 건축을 담당하던 목수가 민간으로 나간 근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이 박사가 이 저택으로 옮겨 온 이후 이곳은 해방정국의 중심지가 됐다. 당초 이 저택을 보유한 사람처럼 일제하에서 치부했다는 약점을 가진 자들이나 친일했던 세력들이 자신의 보신을 위해 이승만 박사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이 저택을 제공한 행위이다. 이들의 후원으로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정권을 획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끝까지 친일파를 척결하는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우습게도 이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신탁통치 반대투쟁이 이 ‘돈암장’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미군정과 충돌이 발생했다. 즉 이승만 박사와 미군정이 충돌하게 되자 이 저택의 소유자는 불안해졌으며 이승만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시대 마지막 르네상스인과 이웃들

이 돈암장을 뒤로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옆집은 일본식 가옥으로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이다. 이어 나타나는 것이 큰 교회당이다. 시멘트 소재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살려 만든 장방형의 사각 기둥과 그 위로 길게 이은 불인 담장은 그 안쪽으로 조성된 소나무 정원 등을 외부로 드러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계단과 외부로 도출된 현관까지 적용되고 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곡면을 처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소재도 그러하다. 시멘트의 거친 표면도 그러하고 본당의 건물에 사용된 빨간 벽돌도 그러하다. 또 본당 상부에 배치된 창문도 예사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공간을 자치하고 있는 하얀색 원기둥 장식물은 쉽게 눈을 땔 수 없게 한다. 가느다란 검은 세로선을 이용하여 예수의 형상을 만든 작품 또한 좋다. 이런 예닮 교회의 건물은 우리 마을의 품위를 더해 주고 있다.

이 교회당 앞에는 송산 아파트가 있다. 이곳이 이 마을의 또 다른 문화 예술가, 안 동립 선생이 거처하던 주택이 있었던 장소이다. 2014년까지 여기에서 사신 그는 그의 전공인 영문학보다 클래식 애호가로서의 명

성이 더 크신 분이다. ‘클래식 음악의 교과서’로 통하는 ‘이 한 장의 명반’ 시리즈로 유명하다.

1932년 평남 평원군에서 태어나 6·25 동안 당시 19세인 약관의 나이에 단신으로 남쪽으로 피란을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실향민의 아픔을 간직했던 분이였다. 음악평론가, 나아가 음악애호가인 선생은 영문학자이자 고전번역가, 소설가, 출판기획자, 기자로 활동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르네상스인’이었다. 1950년대에 소설가로 등단했으나 소설보다는 ‘장자’와 ‘벽암록’을 번역하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음악 에세이를 썼다. 특히 출간 이래 20여 년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한 장의 명반 클래식’을 비롯해 ‘이 한 장의 명반’, 1970년대 후반에 집필한 ‘불멸의 지휘자’와 ‘내 마음의 아리아’ 등으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꾀했다.

요즘 아이들이 새로운 게임이나 스타들을 좋아하는 만큼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다고 한다. 새로운 음반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으면 밤을 새워 기다렸다가 구입하곤 했다한다. 이처럼 클래식 음악에 매료된 것은 그의 어린 시절에 기인된 것이다. 그의 부친이 가장 아끼던 소장품은 축음기였다 한다. 귀히 여기는 까닭에 근처에는 열쥘도 못하게 했다.

그런 유년 환경 속에서 자란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음악은 모차르트의 자장가와 광란의 아리아 등이라고 한다. 특히 광란의 아리아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실화로 만든 작품이다. 그 오페라 속에서 비극적인 정략 결혼을 한 여주인공이 신랑을 찔러 죽인다. 피투성이가 된 채 미쳐서 실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착각하며 17분간에 걸쳐 부르는 대작이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일 뿐만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 선생은 이런 음악을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모차르트의 자장가 속에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실향의 아픔을 달래려 했을 것이다.

이젠 이곳에서 발길을 돌려 내려간다. 중간에 난 큰 길을 따라 삼선 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남원 추어탕 집이 있다. 그곳에서 좀 더 대로 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골목길이 나온다.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그 옛날의 정경들이 남아있다. 한옥도 보이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도 보인다. 공해가 있는 곳에서는 자랄 수 없다는 나무 중 하나인 감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시 큰 길이 나오면 왕복 6차선 길로 나오게 되고 오랜 전통을 가진 중국집 송림원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선다. 이 길은 김밥 천국으로 이어진다. 이 작은 골목길을 기점으로 대로 쪽으로는 상가 건물이 있었고 그 뒤로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우리의 골목 기행은 이것으로 끝이다. 왕복 6차선의 대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근대식 야유회 겸 체육대회를 개최하던 별판이기도 했으며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의 병정들이 말을 타며 활을 쏘거나 훈련을 하던 훈련장이 되기도 한다. 이제 많은 차량 통행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정체되는 그런 도로로 바뀌게 되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온 것이다. 성북동의 어귀, 동소문동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또 겪게 될까? 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겨움과 편의성이 공존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

박진하는 동소문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모르모트의 반응

전광용

이 단편 소설의 작가, 전광용 선생은 냉철한 사실적 시선으로 작품의 리얼리티를 실감 있게 묘사한다는 면에서 높게 평가되는 소설가였다. 여기에 소개하는 ‘모르모트의 반응’은 동소문동에 거주하면서 저술한 작품으로, 당시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전광용 선생은 〈주막〉이라는 동인회를 만들어 활동하실 만큼 동료 문인들과 어울려 삼선시장이나 주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선생의 집과 가까운 삼선 시장 근처에 살던 정한숙 선생과는 더욱 그러했다. 때로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정 선생이 집까지 잘 가셨는지 걱정이 되어 아드님으로 하여금 뒤를 쫓아 가 확인해보라고 하시곤 했다. 바로 그 아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소재로 단편을 썼다.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1964년 즈음의 이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참말 예기치 않은 불운한 봉변이었다. 자빠져도 코 깨지는 신수라고 허진許璉에게는 느껴지기도 했다. 갑자기 때문 앞에서 왁자지껄 고아대는 아우성소리가 들려왔다. 허진의 눈길은 그 쪽으로 쏠렸다. 아들 윤潤이 숨이 끊어진 양 다리를 늘어뜨리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안겨 들어오고

있었다.

“에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윤이 개한테 물렸어요.”

허진은 심한 충격을 받는 순간 공수병이 즉각으로 연결되어 왔다. 아이를 들고 있는 아주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바를 몰라 했다. 그런데 윤이 녀석은 울지도 않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눈알만을 크게 뜬 채 초점 잃은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아니, 어디를 물렸어요?”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외치는 아내의 질린 목소리였다.

“어쩌면, 그놈의 개가 글썄 거기를 물겠어요.”

허진은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하는 격동을 느꼈다. 옆집 아주머니는 윤을 마루에 내려놓으며 울상이 되어 있었다.

“아이구, 저걸 어떻게 해…”

아내의 울명한 비명이다.

“하필이면 자지를…”

허진은 혼자소리같이 넋かり며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궁둥이께까지 내려온 아랫도리를 홀렁 잡아 벗겼다. 몽정 끊어져 나간 고추 끝에는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징그럽고 몹서리쳐져 다시 바라다볼 엄도 못했다. 눈앞이 아찔해 왔다.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느 개가 물었어요?”

핏기가 가서 파랗게 질린 아내는 말소리마저 떨려 있었다.

“저의 개가요…”

옆집 아주머니는 거의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죄라도 저지르고 벌을 기다리는 것만 같은 초췌한 표정이었다.

“여보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봅시다…”

그제서야, 허진은 겨우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아내는 아이 옆에

서 어쩔 바를 몰라 하며 어린애처럼 찔끔찔끔 눈물을 짜고 있었다.

“자식이… 차라리 다리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지…”

허진은 누구에게랄 것 없이 뻗으면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다.

(육신이 멸절한 놈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저런 불구를 가지고…)

어린 것의 창창한 앞길이 가여웠다. 곧이어 채털리 부인이 연상되어 왔다. 참말 다리 하나나 팔 하나가 없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차라리 그랬으면 이다지도 암담하지는 않을 것만 같았다.

쓰리지 않게 상처에 숨을 대고 바지를 추켜올리는 순간 생각 키는 것이 있었다.

“여기서 잘라진 것이 어땠어요…”

말이 자기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아차 이성을 잃었구나 하는 후회가 뒤따랐다. 주위에 둘러 있는 이웃 아낙네들을 직시하기 민망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웃는 사람은 없었다.

“글쎄요…”

옆집 아주머니는 대답 한마디를 남기고는 벌써 대문 쪽으로 뛰어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 놈의 개가 하필이면 왜 거기를 물었을까…) 그는 똑같은 반문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몰랐다.

“그 자리에 가 봐도 아무것도 떨어진 것이 없던데요…”

다시 돌아오는 옆집 아주머니의 굳어진 표정은 아직도 풀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네는 윤이 옆으로 다가오자마자 바짓가랑이를 뒤흔쳐 그 속을 살살이 뒤졌다.

“이거…”

그 사이 벌써 피가 죽어 검붉게 변색한 살까풀을 그네는 손끝으로 집어 들었다. 허진은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백지에 싸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신발을 신었다. 윤을 안고 앞에 서서 찾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내의 뒤를 따르며 그는 장사지내러 가는 것만 같은 환각을 느끼는 것이었다. 질어가는 황혼 속에 가로수의 낙엽이 우수수 윤의 머리 위에 떨어

지는 것을 바라보면 그는 불길한 예감을 막을 길 없었다.

‘사람 집이 흥할 때면 식구가 늘고, 망쪼가 들라면 가솔이 주는 법이니라…’

생존 시 입버릇처럼 너까리시던 조부의 말도 노상 터무니없는 뉘드리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했다. 당대의 귀재라고 칭송이 자자하던 아들 둘을, 그것도 거의 한꺼번에 손쓸 사이도 없이 앞세우고 나자 조부의 굽힐 줄 모르는 기개도 고목처럼 꺾여져 갔다. 그 바람으로 사람도 앓고 재물도 흩어지고, 말하자면 조부의 지론은 그대로 적중한 결과로 되고 말았다. 현대인은 경제를 위주로 인간을 생각하기 일쑤지만, 조부는 확실히 재물에 우선하여 인간을 생각했던 것만 같았다.

허진의 가족계획에 대한 무관심은 이러한 전습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무의식적으로 배태되어진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사태가 현실적으로 그의 자녀관을 지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일이기도 했다.

첫아이는 딸이었다. 가슴에 담이 박혀 끓일 사이 없이 해수병으로 누워있던 조부도 이 날 새벽만은 기침을 참아가며 증손자의 첫울음을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의 귀는 아마도 벽을 뚫고 옆방 손자며느리의 산실에 직결되어 있었을 것이었다.

조부 옆에 앉아 있었던 허진은 산모의 진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조부의 안절부절하는 몸가짐을 훑쳐보지 않을 수 없었다. 숨죽이고 몸을 도사리는 조부의 긴장된 모습은 허진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지 않을 수 없게 할 만큼 절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산아의 찢는 듯한 울음소리… 참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가슴을 후벼가는 것 같던 산모의 진통 소리는 정지 명령이라도 받은 듯이 딱 그쳤다. 그러나 산파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초조히 흐르고 있었다. 다만 낯대야에서 출렁이는 물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올 뿐이었

다. 허진은 청각을 문 쪽으로 모은 채 조부의 동작을 지키고 있었다. 조부는 한 쪽 팔꿈치를 세우고 상반신을 반쯤 일으켰다. 수척한 옆얼굴 위의 흰 머리카락이 유난히 엉성해 보였다.

“뭣이 났냐?”

참다못해 튀어나온 조부의 흥분된 음성이었다. 목 줄기의 핏대가 불쑥 솟아오르며 부르르 떨었다. 허진은 조부를 부축하려다 그 노기에 질려 잠깐 멈췄했다.

“딸이에요…”

산파의 맥 빠진 목소리가 느릿하게 스며왔다.

“음…”

조부는 신음 소리 같은 김빠진 콧소리를 치며 풀썩 주저 누워 버렸다. 참았던 기침이 그칠 줄 모르게 계속되었다. 허진은 긴 숨길을 돌려 조부가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내쉬었다.

그 후 조부는 증손녀를 단 한 번도 자기 옆으로 가까이한 적이 없었다. 결국 조부는 대를 이을 증손을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그의 가장 큰 소원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첫아이는 아들딸을 가리키는 고사하고 자식에 대한 이렇다 할 분별도 없이 얻었다. 오히려 이상 어른을 대하는 것이 쑥스럽고 부끄러웠다. 돌아보지 않는 조부 앞에서 아이를 안고 주접을 떨 수도 없었다. 그러나 둘째아이부터는 허진 자신도 기다려졌다. 자기 주관의 집안으로 바뀌어진 탓도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는 심정이 새삼스럽게 절실해졌다. 만약 이 되어가는 아내의 아랫배를 어루만지며 마치 뱃속의 태동을 듣기라도 하려는 듯이 흥분되어 해산날을 기다렸었다. 아들이 나면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하고, 옥편을 끄집어내어 글자 획을 찾아보기도 했다. 만약에 딸이 나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마치 불길한 방정이라도 떠는 것 같아 딸의 이름은 애당초 지어 볼 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둘째아이도 딸이었다. 기대와 희망은 순시에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손맥이 탁 풀리는 것만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지금 생각해도 여섯 아이 중에서 가장 실망했던 것은 그때인 것만 같았다. 그는 마치 아내의 탓 이거나 한 것처럼 제 편에서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기까지 했다. 산후증으로 누워 있는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글썽했다.

“이 사람, 못나게… 또 딸을 맨들었어…”

친구인 왕진 의사가 환자 방에서 나오며 농조로 슬며시 건드렸다. 허진은 대답할 말이 없이 멧쩍게 비굴한 웃음을 떨 뿐이었다.

셋째도 딸이었다. 넷째부터는 아예 기대도 가지지 않았다. 자신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으로 돌려졌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해산될 때까지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얹힌 초조한 심정이 완전히 가셔지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다섯째 번에 가서 의외로 아들을 얻었다. 집안에서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수선을 떨어냈다. 인사받기에 오히려 민망스러웠다. 자기나 아내의 친구들은 무 뽐아내듯 몇씩 계속 아들을 술술 낳는데 자기의 경우는 왜 이다지도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고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했다. 아무튼 첫아들이란 신기하기도 기쁜 일이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는 욕심을 짓밟고 여섯째도 딸이었다.

산아 제한. 이미 귀에 익어온 어휘였다. 조금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말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허진의 경우는 이런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이에 어찌어찌 하다가 6남매의 아버지가 되어진 셈이었다.

가족계획. 이 같은 새로운 용어가 약 광고처럼 빗발쳐도 역시 그는 남의 일인 양 거의 외면해 왔었다. 소파 수술이니 정관수술이니 하는, 예전엔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전문 술어들이 예사로운 화젯거리가 될 만큼 자기 주변에서 부쩍대어도 그는 굳이 참견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 둘에 딸 하나…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숫자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이상형의 생산 계획처럼 내세워 떠들썩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차 이미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곱씹는 일이 없지 않기도 했다.

삼대독자인 자신, 웃어른이란 한 분도 모시고 있지 않았다. 손위의 누님도 출가 후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자기에게 가까운 피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와 6남매를 거느리는 가정으로 가문을 이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자기 자신 그러한 것을 따질 만큼 케케묵은 세대에 속한다고 자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느 결에 그런 흐름에 젖을 만큼 세월도 흘러간 것만 같았다.

웃음들의 터울로 보아 또 아이가 들 만한 시기에 이르렀다. 아내는 아들 하나만 더… 하고 욕심을 부리지만, 허진으로서의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 부쩍 늘어감에 따라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이젠 구미가 돌지 않는다는 심정이었다. 거기에 아내는 여섯째 아이를 난 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무척 쇠약해졌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아내의 욕망은 그것으로 완전히 포기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허진이 정관 수술에 대해 다소나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만일 아내가 다시 잉태를 하는 경우, 소파 수술은 극도로 쇠약해진 아내의 건강을 더치게 할 우려가 없지 않았다는 데 기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연 방지책으로 자신이 출산하여 즉각 수술대에 올라갔을 정도로 결심이 되어진 것도 아니었다.

허진은 지나갈 바람에 오고가던 주위 사람들의 화제를 되새겨보았다.

“애 만들 수 없는 남자란 정말 흥미가 없어요. 어딘가 허전하고 기대가 없어서요. 성에 대한 스릴이 없지 않아요…”

남성에 못지않게 성격이 팔팔한 M여사의, 정관 수술에 동조하지 않는 주장이었다.

“이 사람 별 수 없네, 민주주의란 개수로 따지는 건데, 자식새끼 하나

라도 숫자가 많은 놈이 중국엔 이기는 걸세…”

이건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차점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친구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는 산아 제한 자체에 근본적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게, 부모가 자식 덕 볼 세월은 인제 다 지났어. 그저 개나 돼지새끼처럼 수두룩이 낳아놓고 평생 고생주머니에서 헤어나지 못할 바에야… 공부라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면 몰라도…”

현실적인 실리 면에 중점을 둔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이었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떤가. 요샌 오히려 딸들이 나은가보이… 사내새끼 잘못 내놓고, 부모에게 권총이라도 들고 대드는 패륜의 봉변을 당하기보다는…”

입심 좋은 친구의 궤변도 떠올랐다. 다 이렇다 할 목적의식 없이 이야기 끝에 농담으로 뱉어진 어쭙잖은 말들 같지만, 그 속에도 제각기 일면의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허진에게는 느껴지기도 했다.

허진은 결국 정관 수술을 하고 말았다.

그것은 경제적인 생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의 하나였지만, 일곱째를 임신한 아내가 도저히 산모의 건강을 지탱할 수 없어 둘 다 죽일 바에야 모체라도 구해야 한다는 의사의 강권에 못 이겨 본인의 반대를 무릎 쓰고 소파 수술을 한 결과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아내는 그 후 오랫동안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겨우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도 조금만 고역에 시달리면 금방 도지기 일쑤였다. 거기에 정관 수술은 포경 수술보다도 더 간단하다는 의사의 권유에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겪은 자신으로서 그것보다 간단하다면 야 겁낼 것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박차를 가하게 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다시 자식이 필요할 경우는 복원수술이 가능할뿐더러 성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는 자신만만한 의사의 설득력이 적지 않게 그의 심리를 회

전시키는 구실을 했었다. 필요하면 막고 필요하지 않으면 떼놓고 아주 편리할 것만 같았다.

불의의 경우를 당하여 아내가 죽거나 온 식구의 생계가 파탄에 빠지기 보다는 자기 혼자 약간의 불편을 참아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역시 가장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에 겨웠던 탓이기도 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이 거의 죽었다 살아난 뒤부터는 남편의 이런 결의를 정면에서 거부하려 들지는 않았다.

수술 직후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남성으로서의 미련이나 비굴함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생리작용이나 정신면에 미치는 아무런 이상도 직감되지 않았기에 그는 체념 같은 자위를 달래어 왔었다.

그는 순간순간 자신이 완전히 성의 불구자가 되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운 환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으나 그러한 미묘한 감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무마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던 시기에 천만뜻밖에도 이 같은 윤이 봉변에 접하게 된 것이었다.

타고 있던 차가 그렇게 더디게 느껴진 일은 일찍이 없었다. 허진에게는 로터리에서의 신호 대기조차 안타까울 정도였다. 그는 운전대 옆에 앉아 담배를 계속 빨며 뒷 칸의 윤을 안고 있는 아내를 돌아다보았다. 창백하게 지쳐 있는 아내의 물결은 빈사 상태의 병자처럼 기력이 없어 보였다.

“여보…”

그는 다시 담배 한 모금을 빨고 말을 이었다.

“만일 성불구가 된다면 치료하지 말고 그대로 죽여 버립시다…”

“글쎄… 빨리 가요…”

아내의 대답은 빗나가고 있었다.

아내도 네거리마다 멈추는 차가 안타까운 모양으로 짜증어린 말투였다. 허진은 시선을 윤에게로 옮겼다. 녀석은 무엇을 알아들었는지 눈동자가 말뚱하여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파, 윤아…”

허진은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 아이에게로 말머리를 돌렸다. 묻지 않아도 개가 생살을 물어뜯었으니 아플 것은 뻔한 일였다. 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불구가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하고 허진은 다시 한 번 스스로 이 단정을 내려보는 것이었다. 옛날 같으면 수절하는 생각부라도 있겠지만 요새 세상엔 그럴 열녀도 기대할 수 없겠거니와, 그것을 강요해낼 뱃심 좋은 인간도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성인이 되어 혼자 몸부림치며 번민할 바에야 차라리 철들기 전에 일찍 감치 사라지는 것이 편안하리라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했다 해도 예민한 성기의 감각까지를 수술로 좌우할 수는 없을 것만 같았다. 설령 근육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육체의 다른 부분과 달라, 그것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유리창을 거쳐 포도에 우글거리는 군상들을 바라보며 허진은 자기 자신에게로 생각을 돌리고 있었다.

윤이 만약 불행하게도 성불구가 되는 날이면 자기들에게는 아들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이미 해산 능력을 상실한 육체다. 자기 자신은 또 멀쩡한 성의 불구가 아닌가… 단순한 심정으로 정관 수술에 응한 것이 얼마나 무모했던가 하는 뉘우침이 거세게 치밀었다.

역시 인생은 그때그때 하나하나 깨끗하게 청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결로 밀어가며 죽는 시간에 저절로 결말이 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던가…자기의 성급히 서두른 행동이 경솔했던 것만 같게 느껴질 뿐이었다. 자연의 섭리에 대한 거역… 꼭 그 죄과로 나타난 결과 같게만 여겨지는 이중의 괴로움을 막을 길 없었다.

허진은 윤을 안고 병원 문으로 들어섰다. 꼭 눈앞에 죽음이 대기하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감이 앞섰다. 그는 아이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의사들의 입을 지키고 있었다.

“어떻게 다쳤어요?”

“개가 물었습니다.”

허진은 문득 생각이 나 호주머니를 뒤졌다. 아까 종이에 싸놓은 것을 내밀었다.

“이것이 거기서 잘라진 겁니다…”

의사는 핀셋으로 살까풀을 째어 유심히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다.

“이걸 보세요, 이렇게 벌써 살이 죽어 있지 않아요, 이걸 소용없어요…”

그것을 붙여 원상 복구가 될 수 없을까 하던 일루의 희망은 완전히 꺾여지고 말았다.

“어떻게 성불구만 되지 않게 해 주세요…”

허진의 말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가만히 있어요, 세밀히 조사를 해봐야 할 테니까요…”

의사는 핀셋의 숨에 빨간 약을 묻혀 상처를 닦으며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축의 반사등 광선이 위에서 수직으로 윤의 하반신을 비쳐댔다. 의사 세 사람이나 둘러서서 윤의 국부를 만지며 주고받는 말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허진은 청각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개들이 어린애들 자지를 잘 문단 말이야.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치의는 상처에 눈을 준대로 계속 손을 놀리며 예사롭게 한마디 뱉었다.

“그래, 그 환자는 완전히 나왔어요?”

허진은 다급하게 되물었다.

“네, 이것과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완쾌되어 퇴원했어요…”

허진에게는 숨죽여가는 듯한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 번득었다.

“가만 있자, 까풀만이 떨어져났군. 김 선생, 이거 귀두는 그대로 살아 있지요?”

“네, 팬찰은가 봐요…”

주치의와 젊은 의사의 대화에서 허진은 다시 활기를 얻었다.

진찰은 끝났다.

“까풀이 좀 모지라지만 아직 나이 어리니까 팬찰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귀두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허진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쪽, 까맣게 변색된 근육이 살아나야 할 텐데… 수술하고 2,3일 지나봐야 확실한 거 알겠어요.”

허진은 의사가 핀셋으로 가리키는 곳에 눈을 박았다. 그러나 그로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귀두가 다치지 않았다니, 우선 그것만이라도 요행이라고 느껴질 뿐이었다.

수술을 시작되었다.

마취 주사의 바늘이 국부에 깊숙이 박히자, 지금껏 가만히 누워 있던 윤은 불을 뒤집어쓴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꿈쩍 못하게 사지는 수술대에 얹혀 매어졌다.

허진은 건디다 못해 수술실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아이의 죽어가는 듯한 울음소리는 복도에까지 파동 쳐 왔다. 아내는 소파에 걸터앉아 머리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허진은 아내의 손목을 끌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바깥쪽으로 나갔다.

“팬찰대… 병신은 되지 않을 모양이야…”

그러나, 아내는 그 말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수술은 끝났다. 윤은 수술대에 누인 채로 운반되어 병실 침대로 옮겨졌다. 아직 남아 있는 국부 마취의 여독으로 신경의 작용을 잃은 아이는

통증은 느끼지 않고 흐린 눈동자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 자국이 번들번들한 얼굴은 숨같이 희었다.

아내는 입원 기간 중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러 밖으로 나갔다. 허진은 침대 옆에 걸터앉아 아이의 동정만을 유심히 살폈다. 성기에 대한 수술의 결과가 문제지,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집도 의사의 말이었지만, 허진에게는 그것마저도 믿겨지지 않았다. 꼭 윤이 발광하여 미친 개처럼 왕왕 짖으며 한길에서 버둥거리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만 같은 환영이 눈앞을 가려, 간헐적으로 밀려오는 전율을 금할 길이 없었다.

개에게 물린 공수병은 척수에 놓은 어려운 주사를, 그것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열여덟 대나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그것이 암반해도 미심쩍어 윤을 수술실에서 끌고 나올 때 다시 한 번 의사에게 다짐을 했다. 그러나, 의사는 태연하게 모든 것이 다 치료되었으니 안심하라는 것이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문외한으로서 그 이상 반문하여 의사의 신경을 거슬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일단 병원에 온 이상,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가닥의 불안은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사실, 상처의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아이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허진 자신이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지금의 심경은 사뭇 달라졌다. 윤의 성기능에 대한 실오리만한 기대라도 가질 수 있는 이 시각의 관심의 초점은 그 생명에 대한 집착으로 번져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결말은 얻어지지 않았다. 공수병은 잠재 기간이 길면 10년 후에라도 발광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의사의 말이었다.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었다. 또한 수술의 결과도 기형이나마 어떤 형태는 갖추어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완전한 기능의 보장은 먼 훗날 머느리를 들어 첫손자라도 보아야 그 실험의 반응은 비

로소 확증을 얻을 것만 같기에 아득한 일로 느껴질 뿐이었다.

자신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결론을 안겨다 주는 것만 같았다. 확실히 생식 기능이 정지되었는지 자기 자신으로도 알 길이 없었다. 인공 유산으로 쇠약해진 아내의 육체가 수태 가능한 조건이 구비되고 다시얼마간의 기간이 흘러야 자신의 기능은 판정되어질 것이 아닌가...생각할수록 심각하고도 우울해질 뿐이었다.

아들 윤의 경우가 수동적이고도 동물에 의한 원시적인 피해라면, 자기의 경우는 능동적이면서도 고도로 발달한 메커니즘에 의한 인공적인 피해인 것만 같게 느껴졌다. 동물에 의한 타율적인 불구와 인간 자체에 의한 자율적인 불구... 꼭 제 재주에 제가 넘어진 것만 같은 허전한 감이 가슴 속을 후비고 지나갔다. 허진은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맴돌고 있는 자신을 향해 쓰디쓴 자조의 고소苦笑를 퍼붓고 싶었다.

“오줌... 오줌 마려워...”

윤의 다급한 부르짖음에 허진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불을 들고 아이의 헐렁한 속바지를 정강이께로 밀어 내렸다. 순간 허진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아까 수술실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조차 없던 아이의 고추가 끝만 남겨놓고 봉대에 감긴 채 평소의 갑절이나 되게 통통 부어 있지 않은가...

그는 그렇게 부은 것이 겁이 나면서도, 한쪽으로는 뛰고 싶을 만큼 흥분에 젖은 환희를 느꼈다.

“빨리, 오줌 놀래...”

그는 거기만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시선을 아이의 얼굴로 옮겼다. 윤은 소변을 참다못해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허진으로선 수술한 환자의 오줌을 어떻게 뉘었으면 좋을지 전연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당황하여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가 간호원을 불렀다.

간호원이 윤에게 감겨 있는 붕대 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번기에 오줌을 누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가쁜 숨길을 몰아쉬었다. 오줌을 누고 난 아이의 얼굴에서는 화색이 돌며 긴장이 풀려갔다.

다시 돌아온 간호원은 윤의 체온을 잰 후 주사 한 대를 더 놓고 나갔다. 진통제인지 얼마 있지 않아 윤은 눈을 감고 잠들기 시작했다. (흥, 성이나 생식이 어디 인생의 전부인가...) 허진은 저도 모를 역설적인 한마디를 뇌까리며 가로등이 내다보이는 유리창가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낙엽을 우수수 모는 가을밤은 모든 것을 덮고 감싸듯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다.

윤의 고추에 감긴 붕대는 풀렸고, 꿰겨진 국부를 꿰맨 실은 뽑혔다. 의사들에게도 수술할 때와 같은 심각한 표정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마치, 피크닉이라도 가서 과일 껍질이나 벗기듯이 명랑하고도 경쾌하게 환자를 다루고 있었다.

“아들 하나 새로 얻었어요... 자칫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치의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허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 감사합니다.”

허진은 감격에 차 콧날이 시큰해 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모든 것이 현실 그대로 의식되어 오지 않았다. 개에 물린 그 사실 자체도 꿈만 같았고,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말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계속 꿈속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는 것 같은 흐리멍덩한 기분이었다.

“너, 이놈 운수 좋았다...”

의사는 윤의 공동이를 톡 치고는 다시 한 번 꿰맨 실 자리에 까만 점이 박힌 그 고추자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주 완전합니다. 아마 장성해서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조금 두툼하게 기형이 돼서 그렇지...”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죠...”

주치의의 말을 즉석에서 젊은 의사가 받아넘기며 모두들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간호원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 있었다. 허진도 이번에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막을 길 없었다. 윤은 웃을 주위 입으면서 주위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돌아온 허진은 아내와 함께 퇴원 준비를 서둘렀다. 입원 중엔 벗겨질 사이 없이 계속 감돌고 있던 아내의 얼굴에 비친 불안한 구름도 어느 정도 가셔진 것만 같게 허진에게는 느껴졌다.

“여보, 현대 의학이 아니었다면 윤이는 꼼짝없이 불구가 됐을거요...”

“참 다행이었어요.”

아내의 대답을 들으면서도 허진은 자신이 진실에서 솟아오르는 말을 했는지,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예사로운 대화였는지 확실히 분간이 가지 않았다.

셋이 나란히 앉아 차를 달리면서 허진은 송장 같은 아이를 싣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가던 때의 일을 더듬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빨아 큰 숨과 함께 길게 내뿜었다. 가로수의 단풍이 이 며칠 사이에 유난히 짙어진 것만 같게 느껴졌다. (어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데 성이나 생식이 전부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느닷없이 수술하던 날 밤, 병상에서 뇌까리던 주문 같은 토막을 또 한 번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의 망막에는 20년 후의 며느리와 손자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붙잡아지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모르모트 앞의 과학자처럼, 실험의 경과를 응시하며 그 반응을 기다리는 호기와 기대에 찬 눈동자의 주인공 바로 그것이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민 기고

모(뽀)하는 모임인지 알게 될 때까지 가 보고 싶어요

- 성북동예술커뮤니티 '모모모'(모하는지 모르는 모임)

육끼, 이지

요즘 화제인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스토리가 주로 펼쳐지는 곳은 후계동이라는 가상의 동네이다. 대단한 히어로가 등장하지도, 엄청난 사건이 내용의 주를 이루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처럼 일상이 반복되는 동네에서 보통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고 보듬어 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담아내 감동을 주었다.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후계동의 이야기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 어디에나 있을법한 동네모습이지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여기 성북동도 후계동

의 그들처럼 늘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텐데...

이처럼 동네와 관련된 계기(?)들을 접할 때마다 마을활동을 하는 우리는 일상을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네, 성북동 사람들이 더욱 궁금해지곤 한다. 보통의 삶을 다독여줄 잔잔하고 편안한 모임이 우리 동네에도 있다면?

타동네 친구들이 부러워 할 만큼 성북구에는 크고 작은 마을 모임들이 활발하다. 2014년부터 결성된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지역문화예술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정릉, 미아리고개, 월곡·장위·석관 등 곳곳에서 그 맥을 같이하는 모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안에서 많은 모임이 만들어지고 때론 없어지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임에 대한 고민과 토론도 함께 진행 중이다.

여기 성북동에서도 성북문화재단과 함께 제작년부터는 시각예술모임, 작년에는 예술마을만들기 모임이 추진되었는데 여느 모임들처럼 이어져오기도 또 사라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 성북동에는 어떤 모임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아예 모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풀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름도 '모모모'(모하는지 모르는 모임)로 정하고 부담은 줄이되 잊혀지지 않게 우선은 매월 한 번씩 모여보기로 하였다.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모모'란 이름도 첫모임(2018년 3월 첫 모임 시작)에 참여한 사람이 낸 의견으로 탄생되었고, 다음 모임의 장소와 담당은 그 달 모임에 온 사람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4월 모임은 성북동의 한

수제맥주집에서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셨고, 5월은 북정마을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모여 볼 참이다.

모모모에서는 성북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 성북동 권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한 협력적 관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모모모를 시작한지 석 달째다. 모임의 횟수가 쌓이면서 모모모의 방향과 정체성도 선명해질 것이다. <성북동>이 주 키워드지만 꼭 성북에 연고가 없어도 상관없고 성북동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감사하게도 아직 특별한 게 없는데 꾸준히 모임에 오는 분들이 계셔서 모모모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지난달 진행해보았다. 가장 많은 답변이 ‘맛있는 것 나눠먹고 수다 떨기’였다. 역시 우리 생각처럼 다들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싶은 사람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임이라 주제적인 참여 기회가 많은 곳이니만큼, 동네에 대해, 또 여기서 펼쳐지는 예술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취향을 인정해주고 바쁜 생활이지만 시간 내서(마음내서) 서로가 하는 일을 들여다봐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모모모가 표방하고 있는 느슨하지만 자율적인 모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언젠가 다른 모임처럼 흐지부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원하는 모임이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가는 중이다. 어떤 날에는 그냥 조용히 차만 마시고 가볍게 헤어질지도 모르고 또 어떤 날에는 길에서 길-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모모모가 어떤 모임인지 궁금해 하면서 모이듯이 앞으로도 모하는

지는 몰라도 기다려지는 모임이 되기를 따뜻한 맘으로 기대해본다. ☺

-

모모모(모하는지 모르는 모임)

성북동을 거점으로 예술과 마을에 대한 소통, 공유, 협력, 우정을 나누는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참여 및 문의] : 육끼 010-8746-5276, 이지 010-9917-6017

육끼·이지

‘모모모’ 공동모임지기. 마을(육끼)과 공공기관(이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짝꿍. ‘모모모’를 함께 운영하면서 단짝이 되기를 기대하는 중이다.



주민 기고

작지만 행복한 집 - 성북동 소행성 이야기

편성준

1

“우리, 다음엔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까?”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성수동 전세 아파트에서 4년째 살고 있던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응, 그럴까?”

대답은 했지만 이사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오죽하면 이혼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행사가 이사라는 말까지 있을까. 사실 오래 전부터 아내는 마당이 있는 집을 갖고 싶어 했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몇몇 한옥 단독주택을 여러 번 기웃거리다가 괜히 부동산에 들러 집값도 물어보곤 했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언감생심, 안 될 일이었다. 우리가 때마다 쳐다본다고 그 집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한테 올 리도 만무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수동의 전세가 무서운 추세로 오르고 있었다. 4년 전 여기 올 때는 세상이 다 변해도 이 동네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대림창고에서 윤도현 밴드가 콘서트를 하고, 강남에서 클럽 파티를 하던 젊은이들이 주말이면 여기 와서 창고 파티를 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기획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결과 성수동은 점점 뜨거워져 이제는 아주 ‘핫한’ 동네가 되어버렸다. 아무튼 돈은 모자라고 마땅한 집도 나타나지 않아 날마다 속이 타들어가던 중, 아내가 기획했던 책인 <미래시민의 조건> 출판기념회 뒷풀이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 중 한 분이 우리가 집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성북동을 추천했다. 그 분은 자기가 오랫동안 거래한 집이라면서 성북동의 ‘딸기부동산’을 추천해주기까지 하셨다.

부동산 이름에 왜 ‘딸기’가 들어갔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그런 것까지 물을 정도로 나이브한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는 부동산 사장님을 따라 성북동의 좁은 골목길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흔히 성북동, 하면 높다란 담이 있고 집안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서 있는 저택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닌 곳은 1960~70년대에 지어진, 아주 좁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산동네였다. 마침 다리를 다쳐 걷는 게 불편한 사장님과 이 집 저 집을 순례하던 우리 부부는 너무 지쳐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아, 우리가 가진 돈이 이렇게 형편없는 액수였던가. 아파

트나 연립주택 아니면 다 이런 집밖에 없단 말인가. 영화 [추격자]에서 하정우와 김윤석의 추격선 일부를 찍었다고 알려진 그 골목길들은 그야말로 사람 둘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골목 사이사이 붙어 있는 집들은 너무 낡고 좁았으며, 옆구리를 기대고 서 있는 옆집 아니면 언제 쓰러질지 모를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 마음에 드는 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우리 부부는 골목 어귀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장님이 오늘은 그냥 내려가자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딱 한 집만 더 보고 가자며 앞장을 섰다. 산을 향해 올라가다가 무슨 담벼락 같은 데를 돌아서 다시 흙길을 내려가는 이상한 위치에 있는 이상한 집이었다.

2

마침내 언덕 위의 작은 집과 마주쳤다. 낡아서 다 쓰러져 가는 듯 보였지만 홍익사대부중고 바로 옆에 위치한 덕에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는 한적함과 푸르른 숲에 둘러싸인 뒷마당 쪽 입구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학교 땅과 그 집 땅이 겹치는 곳에 심어놓은 나무와 꽃은 덤이었다. 아내의 눈이 빛났다. 이거 괜찮은데? 집 자체보다 뒷마당이 더 탐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 보지 못했는데 순간, 집이야 고쳐서 살면 되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둘이 동시에 했던 것 같다.

우리는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무턱대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현금을 빌려 집 계약부터 해버리고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행히 전에 전세 살던 분이 나가기로 해서 계약금만 내고, 잔금도 안 치른 상태에서 두 달 정도 먼저 공사를 할 수 있게 집주인이 양해를 해주었다. 파우저 교수님이 북촌에서 한옥 짓고 살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황인범 대목의 소개로 수제자인 임정희 목수님을 만났다. 임 목수님은 대학을 나와 뒤늦게 목수가 하고 싶어 전공을 바꾼 전력이 있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옥상에 올라가 이전에 살던 분이 이리저리 덧댄 지붕을 바라보

며 목수님은 말했다.

“저는 원래 지어져 있던 본체 말고는 다 걷어 낼 겁니다.”

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던 바였다.

공사에 앞서 나온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사흘이 넘게 걸렸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모두 사람이 저 날라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서촌에서 좁은 한옥을 전문으로 수리하던 일꾼들이라 그런지, 모두 손끝이 매섭고 일에 능숙했다. 임 목수님은 기존에 있던 남쪽 현관을 서쪽으로 바꿔버렸다. 안방이 있던 곳을 주방으로 바꾸었고 커다란 창문을 냈다. 거실에서 창밖을 보면 멀리 남산타워가 서 있고 가까이는 대학로의 재능교육은 물론 멀리 종로2가의 종로타워가 보였다. 불법으로 잇대어 있던 작은 방들은 모두 걷어내고 수리 과정에서 나온 구들장을 모아 뒷마당에 깔았다. 뒷마당을 가리고 있던 담은 헐고 낮은 계단을 담처럼 쓰기로 했다. 어차피 아랫집 부부 두 분 말고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담을 높게 올릴 필요가 없었다. 단열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더니 집안의 벽을 매우 두껍게 조정했다.

아주 작은 집이었기에 구조는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고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목수님이 나무로 책장도 다 새로 짜서 넣어주었고 식탁과 싱크대, 스톨까지 집안 사이즈에 꼭 맞게 다시 만들어 주었다. 목수님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하되 꼭 필요한 몇 가지 요구만 들어주기로 했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 해도 목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임 목수님이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의 공사비를 은행이든 주변 사람에게든 꾸어서 제 날짜에 척척 가져다 대는 것뿐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최고의 갑을관계였는지도 모른다. 임 목수님은 정말 신이 나서 일을 했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집이 꼴을 갖춰가는 모습에 감탄하고 기뻐했다(공사 결과가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임 목수님은 평생 A/S를 해주겠다고 약



속했고, 정말로 요즘도 가끔 우리집에 와서 수도나 전기 장치를 손봐준다). 두 달간의 공사를 마치고 8월 초에 입주했다. 정말 작은 집이지만 층간소음이나 전셋값, 주인집 이탄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온전한 우리집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여보, 이제 우리 마루에서 광광 뛰어도 되고 벽에 구멍 뚫어도 돼. 우리집이니까.

3

아내가 집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길래 ‘성북동 소행성(小幸星)’이라 붙였다. ‘작지만 행복한 별’이란 뜻이다. 정말 너무 작아서 침대도 들일 수 없는 집이었으나 새 집을 갖게 된 두 사람의 행복과 여유만은 넘쳐흘렀다. 에어컨이 없어서 첫 여름은 무척 더웠지만 벽이 두껍고 창문이 튼튼해서 그런지 겨울은 춥지 않게 났다. 그렇게 여름과 가을, 겨울을 나고 드디어 처음으로 봄을 맞아 보았다. 봄은 달랐다. 날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면 마당에는 꽃이 지천이었다. 현관문을 열면 꽃향기가 거실을 휘감았고 바람이 불면 뒷마당에서 이어지는 길로 벚꽃들이 비처럼 우수수 흩날렸다. 길고양이가 산 위로 올라오다 우리집 앞에서 멈췄다. 엄마와 새끼로 보이는 커플이었다. 아내는 고양이들에게 ‘양일이’, ‘양이’ 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 처음엔 경계를 심하게 하던 고양이들이 먹이 앞에서 긴장을 풀었다. 새끼인 양이가 먹는 동안 언제나 멀찍하게 떨어져서 땅을 보다가 뒤늦게 식사를 하는 엄마 양일이의 모습은 사뭇 감동적이었다. 두 계절을 넘겨 우리집에 와서 사료를 먹던 양일리와 양이는 어느 날부터 종적을 감췄고(길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 양삼리와 양사를 거쳐 이제 양오라는 고양이가 일 년 넘게 우리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다.

집을 계약하던 날 가서 아내와 함께 한라산 소주 한 잔을 기울였던 가게가 한성대입구역에서 올라오다 보이는 ‘섬지코지’라는 횡집이었다. 이 집은 그 후로 단골이 되었는데 고소하고 싱싱한 회 말고도 장점이

더 있었으니 바로 합리적인 할인율이었다. 홀에서 먹지 않고 포장하면 10퍼센트를 할인해 주는데 거기다가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또 10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더블할인 시스템이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지금도 이 집에서 싼 값에 회를 떠다가 집에서 가볍게 한 잔 하곤 한다. 성북동에서 가장 유명한 집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이는 ‘쌍다리집’일 것이다. 이 집은 기사식당을 표방하는 것 때문인지 ‘테이블 당 소주 한 병 이상 금지’라는 규율이 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기사를 대동해서 나타나는 ‘성북동 국시집’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휴일 아침이면 스타벅스 옆 골목의 ‘할매청국장’에 가서 청국장과 순두부찌개를 먹었고, 가끔은 ‘나폴레옹과자점’에 가서 사라다빵을 사다 먹기도 했다. 한성대 쪽 먹자골목에 있는 ‘꼬꼬통닭’에 가서 맥주를 마시다 보면 돈이 없는 대학생들이 천원 단위까지 ‘n분의 1’을 하는 광경도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한성대 학생들 말고도 대학로를 넘어 온 연극배우나 연출가들이 늘 그득하다.

4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가장 애뜻한 단골은 ‘디미방’이라는 작은 식당과 ‘성북동 쿵집’이라는 커피가게다. 특히 디미방은 이사 초기부터 단골 삼았던 집인데 사모님의 음식솜씨가 깔끔하고 훌륭했다. 그리고 바깥 사장님은 늦게 와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주로 하시는데 지금도 문학과 문화를 매우 가까이 하시는 낭만적인 신사였다. 우리는 허구한 날 디미방에 가서 저녁을 먹었고 틈만 나면 사장 내외분들과 수다를 떨었다. 두 분은 늘 진실하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손님들을 대했기에 따르는 사람들과 단골이 많았다. 오죽하면 동네의 탄 장소로 가게를 옮기는 날엔 성북동의 문화 인사들이 다 모여 술을 마시고 국악과 클래식 공연 등을 펼치며 아쉬움을 표했을까. 하지만 우리 부부가 가장 감복했던 것은 디미방의 휴일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뀌게 된 사연이었다. 두 분 사이

에 큰 딸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참 가게를 오갈 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인사도 나누고 그랬다. 그런데 결혼식을 치루고 나니 하객으로 왔던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갚는 길은 토요일마다 직접 결혼식을 찾아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딸이 그렇지 토요일에 영업하던 가게를 갑자기 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걸 감행한 분들이다.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내는 카페를 운영하던 한 페이스북 친구분께 탁자와 파라솔을 저렴하게 구입했다. 현관 앞에 단지 파라솔 한 개 편 것뿐인데도 느낌이 너무 달랐다. 우리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가 평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티라고 대단한 술이나 음식이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옥상이 있었고 아내가 간단하게 준비하는 ‘매일매일 밥상’의 요리가 있었다. 가끔은 나나 손님들이 별빛 아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성북동은 대학교 바로 옆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배우나 가수들이 많이 살았다. 우리도 알음알음 배우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 부문 조연상을 수상한 박호산 배우도 그 중 한 사람이다. 호산은 나와 인연으로 광고 프로덕션인 우리 회사에서 제작하는 ‘화재안전’ 공익광고에도 출연을 해 주었다. 너무나 성실하게 열연을 해주어서 우리가 고마워 할 일이었지만 호산은 오히려 그 일부러 시작해 자신의 운이 활짝 피고 있다며 나에게 비싼 술과 안주를 샀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

예전에 프리미엄급 아파트 광고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높다란 담과 금빛 게이트가 버티고 있는 아파트 전경 위에 흐르던 메시지가 당시엔 ‘천민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거지 같은 카피’라고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러나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자동차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성북동에 사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해진다. 그것은 여기 한용운 선생이 살았던 심우장이나 최순우 옛집 같은 문화재가 있어서가 아니다.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유명해서도 아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끼리 편안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동네라서 그렇다. 새로 생긴 가게가 있으면 금방 달려가 친해지고 누구나 동네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다. 밤에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도 몰려왔다. 멀리 보이는 빌딩 안에 불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시간이었다. 아파트를 떠나 이렇게 전망이 좋은 집에 살게 된 건 행운이었다. 실은 뒤늦게 아내와 만나 함께 살게 된 것도 행운이었다. 잘 몰라서 그렇지 행운은 우리 삶 도처에 흩어져 있다. 이 년 전에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 나에게 중요한 행운 중 하나였다. 늦게라도 그걸 알아채고 지금 누리며 사는 나는,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

-

편성준은 카피라이터다. 어렸을 때는 공부를, 커서는 일을 잘 못했다. 그래서 국내의 좋은 광고대행사를 전전하면서도 변변한 히트 카피가 없다. 몇 년 전 ‘커피가 착해서 커피에 반하다’ 같은 슬로건을 썼고 최근 화재안전 공익광고 ‘영화 예고편’ 편을 만들었다. 홍익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MBC에드컴, TBWA/Korea 등의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빽세계이삼일’이라는 광고프로덕션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민 인터뷰

돈암초등학교 33회 졸업생들의 그때 그 시절

박진하 | 인터뷰어

계세언, 김종섭, 우해정 | 인터뷰이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이 순간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지나간 일상과 그 안의 풍경을 끄집어내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가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의 옛 모습을 추억하고 회고하는데 필요한 재료로서는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번 호의 주민 인터뷰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척박한 시기를 지나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정치·경제적 격동의 시절을 살아낸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억하는 삼선교

와 동소문동 일대, 성북동 초입의 모습을 돈암초등학교 33회 졸업생인 계세언, 김종섭, 우해정 님의 기억을 통해 반추해봅니다.

박진하(이하 ‘박’)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박진하입니다. 주민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계세언(이하 ‘계’) : 이름은 계세언이고, 돈암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요리사입니다. 동소문동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한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김종섭(이하 ‘김’) : 같은 학교 졸업했고, 성북동에 살았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우해정(이하 ‘우’) : 우해정입니다. 삼선동에 살았고, 돈암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박 : 돈암초등학교가 1930년대 일본이 도시계획하면서 만들었던 학교로 알고 있어요. 요즘 일산처럼 계획된 신도시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그 당시 일본에 의해서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 첫 번째가 돈암지구였거든요. 돈암초는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세워진 학교 1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39년도에 돈암초 설립이 계획됐고, 실제 실행된 것은 1944년도예요.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계 :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박 : 동창생 분들이 학교를 다녔던 1970년도 이 마을의 모습은 어땠나

요? 돈암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분위기에서 살아왔나 궁금합니다.

우 : 한신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발전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추억이 모조리 사라졌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동네는 안 살고 삼선교 살았지만 이쪽에 친척분이 사셨어요. 정말 좁은, 쪽방길이라고 해야 하나. 돈암동에도 그런 골목길이 많았는데 모두 없어졌어요. 좁고 계단 많은 그런 길들이...

계 : 성북동 일부가 그런 길로 남아있지.

우 : 종첩이가 정말 돈암동의 산 증인이죠.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도 여기 살고 계시고.

김 : 여기 변하는 거 다 봐왔죠. 이 동네 살던 친구들은 어릴 때 산동네 살았던 게 추억인데, 사실 나는 아래 살다보니까 보고 기억하는 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가끔가다 올라가보긴 하는데 낯설어서 금방 내려오고.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란 얘기만 들었지 구석구석 가보진 못했어요.

박 :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77년도에 졸업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몇 회 졸업생이지요?

우 : 33회요. 제 언니가 소띠인데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때만 해도 한 학년에 18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때부터는 한 학년에 14반으로 줄었어요. 또 1~2학년 때는 한 반에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갔어요.

계 :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 : 한 반에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계 : 한 반당 70~80명, 한 반에 83명까지 있었어요. 한 학년당 14반씩 있었으니까 전체 학생 수가 육천 오백 명, 육천 육백 명 정도 되었지요.

우 :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해서 아들 낳기 위해 줄줄이 낳았어요.

계 : 우리 때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네 다섯 명씩은 있었어요. 제가 사남매였거든요.

김 : 그치. 나도 오남매였으니까.

박 : 그때 주변에 돈암초등학교 말고 무슨 학교가 있었나요?

계 : 삼선초, 성북초, 정덕초, 송덕초. 이렇게 있었죠.

김 : 사립학교는 홍익초등학교. 지금은 없어졌죠. 예전에 홍익중학교 안에 있었어요.

박 : 돈암초등학교 다니시던 분들의 거주 지역은 대개 어디였나요? 그 당시 학교 가는 길을 그려본다면?

김 : 저는 삼선교, 성북동 쪽. 지금으로 치면 한성대 전철역 부근에 살았어요. 삼선중학교 담을 끼고 그 길 따라 걸어 다녔죠.

김 : 어릴 때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서 나와

서 삼선중학교 담벼락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길 따라 쪽 가다보면 거리가 왜 그렇게 멀었는지 한 번은 가다가 육성회비를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부모님께 엄청 혼났지요. 그때 당시엔 큰돈이라서.

우 : 칠칠맞았다, 그런 걸 잃어버리게. (웃음)

박 : 그때면 삼선교가 있었겠네요?

김 : 그렇죠. 삼선교가 지금 전철역 사거리에 있었어요. 성북천 복개되기 이전이니까.

박 : 그 일대는 풍경이 어땠나요?

김 : 그때 당시엔 대부분 한옥집이고, 종종 2층 양옥집 같은 게 있었고. 도시락은 신문지나 보자기에 싸서 다녔죠. 가다가 김치물 흘리고 그랬어요. 좀 산다는 집 애들은 가방 말고 따로 보온도시락 갖고 다녔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반찬도 보면 겨란후라이, 소시지 싸 온 아이들은 집이 웬만큼 잘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우 : 집에서 길 따라 삼선시장(돈암시장)까지 나오면 동도극장 뒤쪽에, 지금은 복개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복원해놨잖아요. 그 당시엔 하천이 더 넓었어요. 어린 눈엔 많이 커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동도극장이 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 뒤편에서 물가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박 : 동도극장이 어디 있었죠?

계 : 여기(디미방)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 : 지금 우리은행 있는 자리예요.

우 : 맞아요. 그 뒤쪽으로 다녔어요. 가는 길이 머니까 엄마한테 10원만 달라고 해서 아이스케키 사먹으며 가고 그랬죠.

박 : 계 셰프 님은 위쪽에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기록을 보니까 채마밭도 있고, 드문드문 민가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고.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계 : 그때는 무허가 주택이 대다수였고요, 그 중 일부는 허가를 받아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박 : 그게 지금 한진아파트 자리인거죠?

계 : 일명 616번지 606번지 산동네라고 불렀던 동네예요. 지금은 한신, 한진아파트가 됐죠.

박 : 거기서 학교 가는 과정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계 : 거긴 산동네다보니까 돈암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면 거기서부터 오른쪽 방향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 세 개가 있어요. 정문에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길하고, 거기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인수천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거기서 150미터 정도 더 올라가면 교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 집 가는 길은 인수천 따라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죠.

산동네 중간쯤에 있었는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지금의 북악스카이

웨이. 넓은 마당이라고 불렀던 큰 공터도 있었고요. 지금은 구민회관 쪽, 체육기구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우물도 있었어요.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집은 거기서 물을 퍼서 집까지 가져가곤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 통에 얼마씩 팔기도 했어요.

박 : 혹시 도시락 반찬은 뭘 싸갔었나요?

우 : 소시지, 마늘종, 겨란, 멸치볶음... 멸치볶음도 당시엔 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김 : 이유식을 먹고 난 빈 병에는 김치를 싸고, 도시락에 밥 넣고 겨란으로 덮었어요. 겨란프라이에 덮은 밥에다가 김치. 그게 제일 흔한 도시락이었지요. 조금 잘 사는 아이들은 겨란말이, 소시지를 겨란에 싸운 거를 싸왔어요.

우 : 당시엔 보리 혼식을 권장해서 꼭 밥 검사를 했어요.

김 : 맞아요. 보리가 일정 정도 안 보이면 손바닥을 맞았어요. 쌀밥만 싸오면 혼났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보리 많은 애들한테 얻어서 곁에만 올려놓고 그랬어요.

김기민(이하 ‘민’) :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요즘에는 쌀 소비 촉진 운동하는데...

김 : 그나마도 못 싸온 아이들에게는 빵과 우유를 나눠줬어요.

우 : 그때는 신청한 사람은 다 나눠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영양이 부실

하니까 삼각 봉투에 든 우유를 전체 학생들한테 나눠준 것 같아요. 빵도 소보로빵. 크진 않고.

박 : 여기 주변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현격히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 외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그때에 비해 많이 바뀌어서 아쉽다, 이런 게 있다면?

우 : 우리 때 선생님의 위상은 최고였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 시대였어요. 육성회비를 못 내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늘 학부모들은 선생님한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이었죠. 요즘에는 엄마가 더 당당한 시대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건 엄두도 못내는 시대였죠.

민 : 요즘에는 교권과 학습권이 대등해진 시대이죠.

계 : 역전된 게 아니고요? (웃음)

성북천 따라서 엄청나게 긴, 아주 낮은 아파트가 두 채 있었어요. 돈암시장 쪽에 한 채, 파출소 쪽에 한 채. 개천 위에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김 : 삼익아파트라고.

민 : 그게 예전 성북천 복원하기 전에 저층은 상가이고 그 위엔 아파트인 거군요. 종로 낙원상가 비슷하게...

계 : 그렇죠. 그게 바뀌고 돈암시장 일부가 아파트(동일하이빌)로 바뀌고.

김 : 그 유명한 나폴레옹 제과점이 거기 있었어요. 복개천 맨 끝자락에.

민 : 그때도 나폴레옹이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나요?

계 : 그렇죠. 최고였죠. 가장 많이 변한 건 산동네, 지금 한신아파트 지역이에요. 그때는 판자촌까지는 아니지만 무허가 건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로 바뀌었지요.

박 : <놀이의 천국>이라는 책을 보니까 삼선교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 밑으로 아이들이 성북천을 따라서 놀았다고 해요.

계 : 가장 많이 놀던 곳 돈암동 성당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거기에 빨래터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개천이랑 다르게 맑은 물이 나와요. 초등학교때는 키가 작아서 반바지 입고 들어가면 무릎에서 엉덩이까지 물에 닿았어요. 그 물에서 놀았어요. 엄마들 빨래하면 깨끗한 곳에서 씻고 오고 그랬죠. 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띄워 놀기도 하고.

우 : 깨끗했어? 나는 동도극장 뒤쪽 개천 물이 더러웠다고 생각했는데.

김 : 깨끗한 건 아니었는데, 남자 아이들은 위생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

계 : 그랬나?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 생각했지.

박 : 셰프님은 그림 방과 후의 놀이방식이나 특이점이 있다면?

계 : 동네 근처에서 놀기도 하지만 북악스카이웨이에 올라갔어요. 공간도 넓고 뛰어다니기 좋아요. 잔나무 꺾어 칼싸움도 하고, 새총모양 나무 꺾어다 갖고 놀고, 여름엔 수풀이 우거지잖아요. 나무 이용해서 움막 같

은 걸 지어서 놓고, 그렇게 삼삼오오 짝지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아리랑고개에서 팔각정까지 3.5킬로미터 정도 돼요.

겨울철엔 눈이 참 자주 많이 왔는데, 대나무로 스키를 만들어서 탔어요. 대나무를 꺾어서 앞을 불로 지져서 구부려요. 그렇게 만든 스키를 하나씩 갖고 팔각정까지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와요. 아리랑고개까지 내려오면 끝나는데, 힘들어서 다시 못 올라가요.

박 : 그때 길이 있었어요?

계 : 그럼요. 북악스카이웨이가 그때도 있었죠. 팔각정에서 아리랑고개 그 중간에 곰의 집이라는 풀장도 있었어요.

민 : 아, 곰의 집이 풀장이었어요?

김 : 네, 곰의 집이 한 때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했죠.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정치인들의 비밀스런 회의장소였어요. 김종필 씨가 많이 이용했던 곳이에요.

계 : 아리랑고개에서 쪽 내려오면 돈암시장이 나오고, 거기 있는 친구의 어머니들 가게가 있었는데 시장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음식 얻어 먹고.

민 : 돈암시장도 제법 역사가 기네요.

계 : 역사가 길죠. 53년도인가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우 : 삼선시장보다도 훨씬 컸어요.

계 : 그때는 돈암시장 아파트 3층에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면 어린애들이 기웃거려요.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모찌떡을 많이 줬는데 하객들 나갈 때쯤 가면, 모찌떡 하나 얻어먹을 수 있었죠. 그게 얼마나 기뻐는지.

김 : 그때는 피로연이 음식이 아니고 대부분이 모찌떡을 줬어요. 색색깔로 된 모찌떡,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박 : 성북천이 복개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신 거죠? 그와 관련된 추억 좀 들려주세요.

김 : 제가 살던 집이 지금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농협 있는 자리여서 중학교 갈 때마다 개천길 따라 다녔는데, 그때 당시는 복개 전이었어요. 지금은 작아 보이는데 그때는 개천 폭이 크게 느껴졌어요.

계 : 그때는 성북천의 위치가 지금이랑은 달랐어요. 성북천 복개 이전에는 개천 위쪽으로 집들이 있었어요. 다리(버팀목)를 일부 지탱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죠. 성북동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때는 왕복 2차로였어요. 그 길 일부에 집들이 있었던 거죠. 그 뒤편으로 성북천이 흘렀던 거고요. 학생들은 성북천을 사이에 두고 한 쪽은 도로(차도), 길가 인도로 다니기도 했지만 건너편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양쪽으로 다녔어요.

김 :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성대 전철역에서 성북동 올라가는 그 길은 개천길로 알고 있는데?

계 : 아냐. 개천가 집들 뒤편으로, 그러니까 집을 지지하는 버팀목 아래

로 개천이 있었어.

민 : 지금 청계천 복원한 구간 한 곳에, 서울문화재단 청사 위치한 쪽 보면 옛날에 이런 집이 있었다고 해서 남겨놓은, 천변에 기둥 세워놓고 그 위에 지은 판잣집들이 있는데, 그게 청계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북천에도 있었다는 거네요?

계 : 그렇죠. 그런 집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버스 한 대가 다녔었는데, 풍양운수 85번만 성북동을 지나갔어요.

민 : 왕복 2차선 도로면 버스가 다닐 수 있었겠네요. 길가에 파출소는 그때도 그 자리에 있어요. 큰 나무도 그대로 있었고요.

김 :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식수한 거예요.

박 : 삼선교 교각 관련해서는 지금은 전혀 흔적이 안 남아 있잖아요.

김 : 지금 그 성터가 남아 있잖아요. 해화문 있는 곳. 저희 아버님이 이 동네 오신지가 60년 가까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 일대가 전부 목화밭이데요. 마차꾼이 가다가 해가지면 머물고 하룻밤 쉬는 곳이었대요.

계 : 마차하고, 그때는 전차였겠지.

박 : 학교 건물이 세 채였다고 하셨는데.

계 : 본관, 강통교실, 별관. 강통교실, 별관은 주로 1~2학년. 특히 별관에선 오전, 오후반 자리고요, 본관은 3학년부터 6학년 교실이었어요.

우 : 강통교실은 2층 건물로 모양이 둥글고 양철지붕으로 되어있어서 강통처럼 보여서 그렇게 불렸어요.

계 : 그리고 본관 바로 뒤에 방공대피소가 있었고 담벼락 근처에 가면 굴이 있었어요. 그때는 민방위훈련이 아니라 방공훈련이라고 받았어요.

김 : 어떤 집은 방공호집이라고 지칭했는데 아마 그런 집들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굴 같아요.

박 : 소풍은 주로 어디로 갔나요?

계 : 가장 가까운 데는 정릉. 그리고 창경궁, 그때 이름으로는 창경원도 갔고요.

우 : 저학년 때는 창경원(창경궁)을 걸어서 갔어요. 버스 그런 거 안 타고.

민 : 지금이야 그리 먼 거리가 아닐 것 같은데, 어렸을 땐 꽤 먼 거리 아니었나요?

계 : 멀어도 소풍가는 길이니깐 좋았죠.

우 : 짝꿍을 정해서 반별로 줄 서서 걸어 다녔어요. 정릉도 걸어가고.

민 :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그때 모습이랑 최근 모습이랑 달라진 건 없나요?

계 : 거기는 별로 손대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

계 : 공식적으로 다닐 때는 정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스카이웨이 통해서 담벼락이 있어요. 벽돌 담벼락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 다녔어요. 담벼락 넘자마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녀탕, 그러니까 약수터가 꽤 규모가 컸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어른들이 옷통 벗고 등목도 하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규모가 꽤 컸고 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세군데 있어서 샘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식수로 쓰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 흔적도 없더라고요.

박 : 그때는 소풍갈 때 준비물이 뭐가 있었나요?

김 : 김밥, 병으로 된 환타, 과일.

계 : 바나나가 최고였지.

우 : 바나나랑 굴 정도였는데, 그게 그렇게 싸지 않아서 가끔 먹는 거. 바나나는 특히 아프거나 무슨 특별한 일 있을 때, 뭔가 포상을 받을만한 일을 했을 때 먹었죠.

김 : 보통 김밥이었고, 김밥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박 : 그 시절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별명을 많이 붙였는데, 혹시 선생님 별명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우 : 똥싼바지. 외모가 옷이 좀 맘에 안 들었던 거죠. 옷이 허름할 때잖아요.

박 : 선생님이 많이 불쾌해 하셨겠네요.

우 : 그때는 선생님들이 징벌을 할 때 좀 무식하게 했어요. 저는 꺾어보진 않았는데 체벌 중에 걸레물기도 있었고, 화장실 청소도 많이 시켰어요. 손 체벌도 굉장히 많았어요.

계 : 당시는 체벌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물론 화가 많이 난 경우였겠지만, 결상으로 때리는 분도 있었어요.

우 : 출석부로 때리는 건 다반사야. 뭐 잘못하면 출석부로 맞고 그랬죠.

김 :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잘못했으니까 맞았구나 생각했죠.

민 : 출석부로 맞는 거야 저희 때도 있었는데, 결상으로 때리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계 : 겨울에는 난로 위에 한 반의 도시락을 다 쌓아놓는데. 밑에 있는 건 타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걸 꺼내서 위에 올려야 되거든요. 학생들 사이에도 권력이 있어서, 반에서 인기 있는 애들은 중간 자리에 도시락을 넣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체벌을 당하기도 했어요.

박 : 학교 생활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일 하나씩 이야기 해주세요.

우 : 초등학교 때는 공부 외에 그림 그린다거나 노래를 많이 가르쳐 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사교육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림 그리는 날, 영어단어 시험, 수학 시험 보는 날 같은 행사들이 많았어요, 포

스터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지요.

박 : 혹시 크게 싸워본 기억도 있나요?

계 : 그때는 맞아본 기억만 있죠. (웃음)

김 : 그때는 친구랑 다툼이 있으면 ‘너 나와라’ 해서 학교 뒤편으로 갔었어요. 정정당당히 해보자, 뭐 이렇게. 서로 결투하자고 해가지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했는데, 시작한지 10초 만에, 불리할거 같아서 바로 그만하자고 했죠. (웃음)

박 : 다른 재미난 일은 없었나요?

김 : 재미난 건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과외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함께 과외 했던 여학생을 최근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신기한 것이 지금 봐도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박 : 세프 님은 어땠나요?

계 : 초등학교 2학년 때 동급생 친구와 좀 불량스러운 형이 있었어요. 가방 매고 등교하는데 그 형이 놀러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방은 뒷산에 풀로 덮어두고 가면 된다고 해서 청계천을 내려갔죠. 신나게 놀고 와 보니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겠어요. 결국 못 찾았죠. 어쩔 수 없이 집에 와서 부모님께 자초지종 말씀드리고 엄청 혼났어요. 6년 동안 지각하고 빠진 날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개근상을 못 받은 기억이 나네요.

박 : 우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남는 기억이 있나요?

우 : 저는 학교 끝나면 집이 머니까 곧바로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동네 공터에서 애들이 모여서 놀았어요. 그때는 차가 많이 안 다녔거든요.

민 : 세 분은 동창회 때 만나신 건가요? 아님 학창시절부터 쪽 알고 지 내신 건가요?

우 : 몰랐어요. 기억도 안나.

김 : 졸업하고 나서, 최근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죠.

우 : 다시 만난 지 10년 넘었어요.

민 : 동창회 나가시면 보통 어느 정도 규모로 모이나요?

김 :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돈암초등학교는 인원수가 꽤 많은 편 이예요.

우 : 돈암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운동회하고, 연말에 송년회도 하고 산악 회, 축구회, 볼링모임, 낚시 등 소모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졸업 기수별 로 많이 모여서 총동문회 하면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5월 19일이 운동 회인데 이번에는 33회 저희 기수가 주관해요. 기수별로 돌아가면서 준 비하거든요. 그럼 선배님들이 물품협찬, 현금협찬, 이런 협찬도 많이 해 주시고요.

박 : 마지막으로 돈암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절을 행복지수를 점수로

매겨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우 : 학교를 좀 멀리 다녀서 힘들긴 했지만 8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건 다양하게 친구를 잘 못 사귀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삼선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삼선초보다 돈암초가 더 좋은 학교라고 해서 다녔어요. 애들 걸음으로는 좀 멀어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학교 친 구들이랑 잘 못 놀았던 거죠.

김 : 저는 8점. 어렵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아주 풍요로웠던 것도 아니 고 원만하게 다녔으니까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생활이 거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계 : 재밌게 놀았던 거 생각해 보면 9.5점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생 활 돌이켜보면 대체로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잘 먹여줬고, 친구들과 재밌게 잘 놀았고, 학교도 큰 사고 없이 잘 다녔고.

박 :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인터뷰는 끝내고 편하게 이야기 나 뉘보시죠.

민 : 사실 진짜 이야기는 녹음 끄면 나오는데 아쉽네요. (웃음)

인터뷰를 끝내며 아쉬웠던 건 비단 저뿐이었을까요? 취재라는 명목 하 에 각 잡고(?) 나눈 이야기다보니 미처 지면에 실지 못한 이야기가 많 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게 된 그 시절 의 이야기가 아쉽기만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날은 마침 우해정 님의 생일이었습니다. 계세언, 김종

섭 님 두 분은 동창의 생일을 축하하며 꽃과 케이크를 준비해주셨고, 조출한 생일파티를 열었지요. 남편에게도 올해 생일축하 꽃을 못 받아봤다며 집에 가서 자랑해야겠다고 즐거워하시던 그 모습이 인터뷰가 끝난 지금도 선합니다.

학창시절 오고 가며 스쳐지나갔을지언정 막상 친구로 만난 적은 없었던 세 분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동창회에서 만나 우정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인연일까요. 한 곳에 머물며 오래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서울 사람들이기에 더욱 신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 추억 속의 삼선교와 동소문동, 성북동의 모습처럼 세 분의 뒤늦게 시작된 남다른 우정도 오랜 추억으로 간직되길 소망하며 인터뷰를 끝맺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참여하여 옛날 옛적 삼선교 일대의 모습과 어린 시절 추억을 들려주신 계세연, 김종섭, 우해정 님께 감사드립니다. ㉠

-

김기민 (성북동천 총무) | 취재 현장지원 및 여는글/닫는글 작성, 초고 감수

박진하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 | 인터뷰어(취재), 최종감수

차정미 (동 잡지 편집위원 겸 사업운영담당자) | 녹취기록

최나현 (동 잡지 교정/교열 담당자) | 편집 · 채구성



성북동 문화 아지트

성북동에서 갤러리를 하는 이유

아트스페이스 H

아트스페이스 에이치(Artspace H)는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상업 화랑입니다. 모든 전시 관람은 무료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명절에만 휴관입니다. 전시는 통상 한 달에 한두 번 이루어집니다. 2008년 4월 북촌지역 창덕궁 담 근처에 갤러리로서 첫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정확히 만 10년이 된 갤러리입니다.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들이 마음껏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 갤러리 설립 취지였습니다.

성북동으로 2016년 5월 1일에 이사를 와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호동 씨가 출연했던 1박 2일에서 북촌이 알려지면서, 조용

했던 북촌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관광지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반해 성북동은 고즈넉한 옛 동네의 정취를 머금고 있지만, 아직 개발의 손길이 덜 닿은 동네라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시내 중심지에서 지하철로 삼십 분 떨어진 곳, 십일 년 간 살았던 런던의 한 작은 동네 - 그 한적한 느낌을 이곳 성북동에서 종종 느낍니다. 성북동의 진정한 매력은 슬로우 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동네라서가 아닐까요?

갤러리 주차장에서 바라다 보이는 70, 80년대 주택들이 무척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미래의 성북동은 예술가들이 주도해서 변화시켰으면 합니다. 문인, 음악가, 건축가, 예술가들의 작업실, 공방, 갤러리, 자그마한 가게들이 어우러져서 예술과 문화로 이루어진 멋진 동네로 거듭나는 데에 우리 갤러리도 일조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흥미를 잃어버린 인사동, 삼청동, 대학로, 로테오 거리, 가로수 길과 같은 전철을 성북동만큼은 절대 밟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아트스페이스 H는 성북로 49 운석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석빌딩이라는 간판이 없는 관계로 홈페이지 슈퍼마켓이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한다면, 성북동 주민들은 쉽게 알 것 같습니다. 영어로 아트스페이스는 갤러리를 뜻하는 예술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갤러리라는 용어보다는 아트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갤러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듯합니다.

영어 이니셜 H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휴머니티(Humanity), 하모니(Harmony), 해피니스(Happiness)를 뜻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과 작품을 구입하는 컬렉터들도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갤러리의



역할은 작가와 컬렉터를 조화로운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갤러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북동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근현대 시절 성북동에 살았던 수많은 문인과 여러 예술가의 문학과 예술의 숨결과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북동 길을 걷노라면, 한용운과 김광섭의 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장승업과 김환기의 숨결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북동의 자랑인 길상사를 둘러보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되새겨보기도 하고, 백석 시인과 김영한의 못 다 이룬 사랑에 가슴이 저미기도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 화랑이지만, 성북동에 있으면서 일 년에 몇 차례 성신여대 미술대학원생들에게 무료 전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 예술가들과 컬렉터들이 힘을 모아 자선 전시를 열고, 이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한성대 입구 역 근처에 있는 라파엘 클리닉에 기부도 합니다. 라파엘 클리닉은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세우신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인데요,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말에 기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갤러리를 하기 오래 전 미술 애호가 시절에 사간동에 있는 어떤 메이저 화랑에 전시 구경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난생 처음 갤러리를 혼자 방문하러니 쑥스럽기도 하고, 작품을 사야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생기고 해서, 십여 분쯤 문 앞을 서성이다가 누군가가 들어가는 틈을 타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답니다. 갤러리를 십 년 해본 입장에서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갤러리의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갤러리만큼이라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셔서 편하게 오랫동안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성북동 주민들과 타 지역 관람객들에게 예술 작품이 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행복을 선사하는 문

턱 낮은 갤러리가 되고 싶습니다. 

-

권도균은 어릴 적부터 책읽기를 좋아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다가 쇼펜하우어가 좋아서 동국대 철학과에 진학했다. 서양철학보다 중국철학과 인도철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고전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산스크리트어와 고전 티베트어를 배우고자 영국 런던대 SOAS 칼리지에서 수학하며 인도 티베트 불교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7년 간 박물관 학예실장으로 일하며 한국과 티베트의 불교 미술을 연구했고, 2010년부터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한국 미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김연정은 권도균과 함께 아트스페이스H의 공동대표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한적한 동네 성북동을 좋아한다. 북적거리는 관광지로 변모한 북촌을 떠나왔던 마음으로 성북동을 떠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우리 동네 아트살롱

소나무 아트스튜디오, 서울미래유산 - 윤중식 가옥

윤가현

성북동은 나에게 고향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1963년에 자리 잡은 이 동네에서 우리 세 자매는 태어나 자랐고, 유학과 결혼 후에도 나는 성북동에 작업실을 쓰며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께서 작업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자라서인지 내가 작가가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속 작업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속해 있던 나의 이러한 환경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가 머물렀던 장소를 미니어처로 제작한 후, 사진이나 영상 촬영

을 통해 기억(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이 담긴 우리집, 오랫동안 사용하던 작업실 공간 등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후 촬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작업 같은 것이다.

나는 우리가 매일 점유하고 있는 익숙한 공간에서의 낯설지만 동시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상상한다. 익숙함과 낯섦, 안전과 불안감, 현실과 비현실과 같이 상반되지만 항상 공존하는 두 가지 개념의 다이얼로그는 나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다.

시카고예술대학(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유학시절에 아마도 향수병에서 출발해 제작한 '성북동 우리집 마당 <145-23, Seongbuk-dong, Seongbuk-gu, Seoul>'은 제작 기간 내내 우리집과 동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게 만들었다. 유학 전에도 딱히 노마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다녀온 후로는 성북동 집 근처에 작업실을 구하고, 성북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등 동네에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점점 더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다.

2012년 가을, 한국에 돌아와서 성북동에 있는 갤러리 스페이스캔을 알게 되어 <오래된집 재생프로젝트> 레지던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자주 지나다니던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집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집<성북동 62-10번지, 62-11번지>는 나에게 동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갖게 만들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항상 존재하는 서울에서 성북동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지금은 문화예술지구로 지정되어 어느 정도 개발이 제한되고, 실제로 10년 넘게 이야기되던 재개발이 최근 들어 구역 해제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북동의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던 오래된 집들은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들과 상가 건물이 세워지면서 달라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동

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에게 <오래된 집>은 어린 시절 기억 속 성북동에 대한 그리움을 더 키움과 동시에 낯선 풍경이 되어 버렸다.

2013년 가을에는 성북동 스페이스 오뉴월에서 <서울지붕첫마을 성북동옛날사진전>에 기획과 작품으로 참여하였다. 동네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옛날 사진들을 모아주고, 그 사진을 모아 두 벽면을 채웠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가족들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을 모아 보니 여긴 어디였다, 원래 이 자리엔 뭐가 있었다, 어렸을 때 이곳에 가 보았다,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근하고 그리운 전시였다.

나는 개인 작업으로 성북동 오래된 집들의 대문을 미니어처로 제작하고 그 문들을 재조합해서 골목길을 만든 다음 사진 촬영을 하였다. 완성된 사진 작업은 성북동 어딘가에 존재할 법한 골목의 모습이었고,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아, 여기가 어디더라?” 혹은 “나 여기 아는데!” 등의 익숙하다는 반응들을 보이다가 이내 무언가 어색하고, 낯선 풍경임을 감지했다.

* 참고: 서울지붕첫마을, 성북동옛날사진전-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창간호 74p

소나무 정원에서 펼쳐지는 키즈아트

부모님 댁인 성북동 145-23번지는 할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작업을 하였던 공간으로의 의미가 큰 곳으로 [서울미래유산 - 윤중식 가옥]으로 지정된 장소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할아버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나무 아트스튜디오, 서울미래유산 - 윤중식 가옥

화가 윤중식(1913-2012)

평양 출생, 동경제국미술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국전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서울문화상,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예술원상(미술부문) 수상

개인전 <상수(上壽:100세)>(2012, 성북구립미술관)展을 마지막으로 별세

내가 작업 활동과 함께 오랫동안 꼭 하고 싶었던 일인 아이들 미술 교육을 위해 <소나무 아트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작업실 공간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소나무 아트스튜디오>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던 이 집에서의 많은 추억이 새삼 떠올랐다. 특히 이 작은 별채 곳곳에는 할아버지 작업실이었을 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옛날 창틀이 그대로 있고, 쓰시던 가구들 중에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작업실로 쓰실 때의 모습이 생생하다.

성북동 집 정원에는 200년 넘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다. 마당 안쪽으로 넓게 자란 소나무 가지들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비나 눈도 막아준다. 봄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집 강아지 동이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소나무 아래에 배를 깔고 누워 있기도 한다. 이 존재감 있는 소나무는 처음 스튜디오의 이름을 정할 때부터 당연히 고려 대상이었다. 스튜디오의 넓은 마당에서 자연재료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소나무가 작업하는 우리 아이들의 배경이 되어주면 정말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할아버지의 작업실이었던 곳인 만큼 특별하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앞서 언급했던 스페이스캔에서 <오래된 집 재생프로젝트> 레지던

시를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작가로 참여해 아이들 대상의 미술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은 아이들에게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아이들 수업을 어렵게 생각하던 나에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의 작업 주제나 방법을 아이들의 수업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기억이 난다.

〈소나무 아트스튜디오〉를 함께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에듀케이터가 스페이스캔의 교육팀장으로 있었던 박선영 에듀케이터이다.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고,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다.

소나무아트스튜디오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소나무아트클래스는 회화, 디자인, 조형, 미디어,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영역의 아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수업이다. 아이들은 미술이 단순히 그리기, 만들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 장르의 복합적인 제작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것을 예술로 접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장르의 융·복합은 나의 작품 제작과도 큰 관련이 있다. 회화를 전공했지만 입체, 사진, 영상,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확장해 나가며 항상 무언가 틀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예술 프로세스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경험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작가클래스는 현대미술, 디자인, 코딩, 인테리어, 패션, 보드게임, 웹툰 등의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및 전문가와 어린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다. 이 클래스는 작가와 전문가가 진행 중인 작업을 모티브로 하여 아이들의 연령대와 특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수업으로,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작품 제작 과정을 경험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소나무 아트스튜디오〉를 준비하는 2018년 상반기 내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넘치고 있다. 본격적으로 아이들 수업을 만들고 진행할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 한동안 잊고 지냈던 배움에 대한 즐거움도 다시 느끼게 되고 무심코 지나던 것들도 다시 돌아보면서 수업에 창의적으로 응용할 생각을 하게 된다.

처음 준비를 시작할 때는 이곳이 상가 건물이 아니어서 교육청 허가, 사업자등록 등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을 다 해결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 소나무아트스튜디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 지금은 6세~13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성북동 스튜디오에 있다 보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할아버지께선 매일 작업을 마치면 항상 붓 관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언니와 나에게 자주 붓 빠는 것을 함께 하도록 해주셨다. 그때는 그게 매일매일 하는 하나의 놀이였다. 유화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작

업실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우리는 그 냄새가 너무 익숙했고 좋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언니와 나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함께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우리 자매의 인생에서 미술이 당연하게 자리를 잡았고, 언니는 디자인과 큐레이팅을, 나는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지금도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소나무 아트스튜디오>를 기획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다. 우리 세 자매의 사진을 즐겨 찍으셨고 드로잉으로도 많이 옮기셨다. 우리가 친구들과 마당에서 뛰어놀 때,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날 때 항상 즐거워 하셨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할아버지께서 연을 직접 만들어 날리는 걸 알려 주시던 게 생각난다. 스튜디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작업할 것을 생각하니 요즘 들어 부쩍 할아버지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된다.

성북동집이 미술관이 되기 전까지, <소나무 아트스튜디오>를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동안은 이곳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적인 특징을 최대한 살려 운영해 볼 계획이다. 

-

윤가현은 소나무아트스튜디오대표이자 에듀케이터이다. 중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시카고예술대학(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Art and Technology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오랫동안 머문 장소에 대한 입체, 사진, 영상 작업을 하며 성북동에 위치한 스페이스캔의 <오래된집 재생프로젝트>, 스페이스오뉴월의 <서울지붕첫마을 성북동옛날사진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성북동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성북동 토박이 작가이다.

* 윤가현 홈페이지 www.yunkahyun.com

* 소나무아트스튜디오

02) 6339-0685

서울 성북구 성북로14가길 13-14 (서울미래유산-윤중식가옥)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onamu_artstudio

* 참고

- 성북동,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 이야기를 찾아서, 46p, 성북동, 오늘의 예술가 - 윤중식

- <서울지붕첫마을, 성북동옛날사진전, 스페이스오뉴월> 전시자료

문화공간 17717 한장 스케치
푸른시간 - 이영은 작가



극장 112x486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14

#1

길을 걷다 스쳐지나간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무엇을 할까. 어떤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떤 생각으로 휴식을 취할까. 하루를 되뇌며 감상에 젖어 있을까. 좀 더 빨리 들어오지 못한 것에 짜증을 내며 추레한 옷차림으로 쭈그러 앉아 드라마를 볼까.

그 사람은 지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와 열쇠로 문을 열고, 아끼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반갑게 맞이하는 가족들에게 의례적으로 인사하며 방으로 직행한다. 이어서, 색깔도 맞지 않는 티셔츠와 바지를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는 거울을 한번 보면서 ‘남들은 집에서 내가 이려고 있는 걸 상상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다음날 아침, 늘어난 티셔츠를 벗고 결혼식에 가기 위해 옷장을 뒤적인다.

위의 글에서 타인처럼 지칭한 ‘그 사람’은 타인에 의해 관찰된 ‘나’일 수도 있다. ‘나’ 또한 모두의 타인이며 ‘타인’은 모두 각각의 나이다. 우리는 사적인 공간에서만 지낼 수는 없기에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모습을 만들어간다. 공간과 환경은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 ‘나’를 다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자아를 지키면서도 공개해도 괜찮을만한 어떠한 ‘표시’를 한다. 그 표시는 누군가에게는 내면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나를 방어해 주기도 하며, 행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알몸의 상태로만 생활하기에는 소통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그 불편함은 시각적으로는 더 이상 벗겨질 수는 없기 때문에 무언가로 가려야만 한다. 고로 작가 본인에게 옷이란, ‘나’와 ‘타인’과의 소통의 매개체이다.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생각과 행동들은 나의 외부에 속하는 공간들과 타인과의 만남에서 다양한 감정으로 공존한다. 이렇듯 각각의 ‘나’는 그들만의 완벽한 내면을 간직한 채 소통 가능한 외면을 이 곳 저 곳에 뿌린다.

#2

극이 시작하려 한다.

아직은 빈자리도 있고 채워진 곳도 있다.

넥타이를 한 사내와 그의 일행이 들어온다.

그들은 어딘가에 앉았고 무대를 바라보며 그렇게 있다.

침묵하기도 하고 함께 온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스웨터를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 사람은 침묵하며 무대와 바닥을 번갈아 바라본다.

극이 시작한다.

모두가 일제히 무대를 바라본다.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한 곳을 바라봤고 모두 조용했고 모두 멈추었다.

극이 끝나고 사람들은 함께 온 지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떠난다.

그리고 그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극장을 떠났다.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과 하나의 시간, 그리고 취향을 나누는 곳인 극장. 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각 분리된 공기는 결코 섞일 리 없는 좌석의 범위 안에서만 부유한다.

이영은 작가

www.leeyoungeun.com

skyoath02@gmail.com



우리 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문인들의 커뮤니티로서의 성북구

- 성북동/정릉동을 중심으로

김준현

지역 문인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성북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문인과 예술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라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용운, 이태준, 박태원, 박경리, 조지훈, 이육사, 신경림... 이곳에 살았던 훌륭한 문인들의 이름만 해도 손으로 꼽는 데 한참 걸릴 정도이지요.

한일병탄 후 일본인들의 대량 이주가 발생하고, 사대문 안에서 살던 뜻 있는 지사들은 서대문 밖으로, 그리고 동대문 밖으로 흩어집니다(사대문 북쪽은 산으로 둘러 싸여져 막힌 것이나 다름없고, 남대문 밖도 일본인들이 차지하지요). 일본인들 등쌀에 견디기 어려웠던 것도 있고, 집

값/땅값이 올라서 삶이 팍팍해졌던 것도 있고, 또 일본인들과 이웃 사이로 생활하는 것을 차마 견디기 힘들어진 것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뜻 있는 지사들이 동대문에 연해 있는 성북구로 많이 이주해오고, 그렇게 조성된 문화와 환경, 분위기 같은 것들 때문에 이 고장이 문인/예술인/지사들에게 각광받는 주거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많은 문화인들이 거주하고, 또 서로 교류하는 활발한 문화적 지역으로 그 이름을 날리게 되지요. 이러한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문인들의 발굴·정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거주사실’ 중심으로 지역문인들을 정리해온 경향에 대한 것이지요. 이 지역에 어떤 문인이 살았는가, 하는 것이 지역문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하지만 문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거주사실 말고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가령 그들이 어디에서 글을 썼는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는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교류했는가.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복원하는 데 있어서 거주사실 말고도 이런 사실들이 역시 중요하듯이, 문인들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이런 사실들을 두루두루 조사해야 그들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조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주사실 조사만 활발했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주사실’은 사실 아주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주민등록 등본/초본만 검토해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지요.

“아, 조지훈 선생은 성북동에 이날 이주했구나. 박경리 선생은 이날 정릉동에 전입신고를 했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지금까지의 지역문인 정리는 대체로 이런 식으

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성북구에서만 사정이 아니고요, 거의 전국의 지자체에서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북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문인들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도 문인들을 거명하며 이 지역이 탄탄한 문인 명단을 갖고 있음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 단계에 만족하고 머무를 수만은 없지요. 이렇게 성북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교류하지 않았을까요? 이들 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 성북구의 한 허름한 주점을 기웃거리고 들여다 보면, 조지훈이 작곡가 윤이상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광경, 혹은 이태준과 박태원이 잡지 <문장>이나 구인회 활동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릉시장 앞의 어떤 포장마차에서 신경림 시인이 혼자 소주를 따르며 시를 구상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거주사실’ 조사만으로는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복원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정리는 당연히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향후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다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곳에 거주했던 문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교류했는가를 살피는 작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문인들의 회고록, 작품, 그리고 각종 매체에 기고한 잡문 등을 뒤져야 하지요. 하지만 이런 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살살이 뒤져도 맑은 물에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큰 성과를 낚아내기가 쉽지 않지요. 글을 읽다가 글쓴이 행적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면, 지역 문인들을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반가워서 무릎을 치게 된답니다. 그만큼 언제 어디서 성과를 만나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까지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령 제가 안수길 선생의 수필을 정리하던 중에, ‘어? 이분이 대표작 「북간도」를 성북동 암자

에서 썼다고?’라는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가 알게 되었을 때처럼 말이지요(암자에 머물렀던 것은 당연히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알아내지 못했던 사실이지요). 하지만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도, 자원도 늘어난 요즘은 이런 방식의 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인들이 어디 살았는가?’에서 출발하여, ‘누구와 무엇을 하며 교류했는가?’로 옮겨가는 과정이지요. 현재의 지역 문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과도기의 과정 중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이런 지점에 놓여 있는 성북구의 문인 연구의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회 연재로 기획되었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성북구가 문인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 그리고 계기들을 소개하고, 다음 회에서는 문인들 개개인의 교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전 - <문장>과 구인회

해방 이전 문인들은 주로 사대문 안의 출판사나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의 고료만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문인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밤이 되면 사대문 밖으로 ‘퇴근’을 하곤 했지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문학을 논했어요(문인들은 누구보다도 술을 좋아하지요). 성북구가 바로 그들이 퇴근하던 대표적인 베드타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문장>은 해방 이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순수 문예지였습니다. 일본이 전시동원체제를 내세워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치던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문학의 보존과 발전에 뜻을 둔 문인들이 안간힘을 모아 간행하던 중요한 유산이지요. <문장> 간행에 담당했던 문인들과, 그 이전부터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구인회’에 참여했던 문인들은 상

당 부분 교집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문장>과 구인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북동에 거주했었던 이태준과 박태원이었지요. 이들보다는 한 세대 뒤인 조지훈은 정지용에 의해 <문장> 추천으로 등단한 시인이랍니다.

이렇듯 <문장>이라는 문예지와, 구인회라는 문학단체는 문인들의 상호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문인들은, 다른 후배문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더욱 많은 문인들이 이사로 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도 하지요. 이렇게 활발한 문인들의 교류 조건은, 지금은 많이 잊혀진 일이지만 당대 문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김내성은 그 동안의 교료를 모아서 성북동에 큰 집을 사서 이주하기도 하지요. 성북동을 중심으로 한 성북구가 ‘문인들의 고장’으로서 일찌감치 명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이러한 교류 활동의 중심 거점이라는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 <현대문학>과 <자유문학>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을 겪은 후 우리 사회는 격변의 과정을 거칩니다. 문인들이 몸담고 있던 문단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편성되지요. 당시 문인들은 문예지를 중심으로 문인 단체를 형성합니다. ‘문인단체’를 형성하려면 자신들의 문예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대 문인들에게 문예지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문단을 양분하던 문예지는 <현대문학>과 <자유문학>이었습니다. 두 잡지는 ‘순수문학’과 ‘현실참여문학’을 각각 주창하면서 날카롭고 치열한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현대문학>의 주요 참여 문인은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조지훈 등이고, <자유문학>의 주요 문인은 김광섭, 안수길, 이현구, 박연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성북구 지역 문인들에 관심이 있었던 독자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 대략 감이 오실 겁

니다. ‘아, 대부분 성북구 문인들이네?’ 이렇게 말이죠.

맞습니다. 낮에는 종로나 명동의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문단 활동을 하던 문인들이, 밤이면 퇴근하여 저녁의 삶을 꾸리던 이 고장에서 두 잡지 문인들이 활발하게 교류한 정황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후, 성북동뿐 아니라 돈암동, 정릉동, 안암동과 종암동 등도 택지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인구가 급증합니다. 따라서 문인들의 커뮤니티는 ‘성북동’에서 ‘성북구 전체’로 넓어지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문인의 고장으로서 정릉동의 성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릉동에 살았던 조연현, 계몽록, 조영암 등은 <현대문학>의 필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요. 그리고 성북동의 조지훈 등과 교류하며 그 문예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했을 것이고요. 또, 성북동에서 살거나 활동했던 김광섭, 안수길 등은 정릉동에 거주한 박연희 등과 함께 <자유문학> 발간을 논의합니다. 한국문학의 대표 저작인 『광장』을 집필한 최인훈은 바로 안수길의 추천으로 <자유문학>에서 등단합니다. 이 두 작가가 사제 관계로 교류했던 곳도 바로 성북구이지요.

이렇게 당대 한국 문단을 양분했던 두 문예지의 핵심 멤버들을 보유했던 성북구, 문인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은 점점 더 탄탄해지지만 합니다. 성북동과 정릉동을 중심으로, 성북구 전체에서 여러 층위에서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지요.

그 밖의 문인 커뮤니티

지금까지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성북구의 문인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조건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문인들의 교류 관계는 매우 복잡하지요. 낮에는 치열한 지상논쟁을 벌이면서도, 밤에는 동네 술집에서 반갑게 만나 서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는 글동무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은 앞으로 차차 복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커뮤니티는 지금도 성북구를 기

반으로 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과 예술가들에 의해 더욱 더 다채로워지고, 새로워지겠지요.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지역 문인들의 커뮤니티는 그 양상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지역 기반 문학 활동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성북 문인 협회'의 활동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도 하고, 문인 최정희의 제자 등이 결성한 '정릉클럽'이 함께 수필집을 간행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성격과 규모를 가진 지역 기반 문인 커뮤니티들이 탄생하고, 운영되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인 커뮤니티도 빼놓을 수 없지요. 성북구에는 많은 대학이 자리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와 1972년까지 돈암동에 위치해 있었던 서라벌예술대학교에서는 많은 문인이 배출되고, 또 그곳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조지훈, 안수길 등 많은 성북 문인들이 학교에서 제자 문인들을 키워냈지요.

문인 스스로 '단체'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각각의 문인들의 공통점을 강조하여 연구자나 평자들이 그들을 커뮤니티로서 호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정릉동에 '여성 문인'들이 많은 것을 주목하여 그들의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든가, 성북구 전체에 지사적인 성격을 가진 문인들이 많아서 한용운과 이육사 같은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논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문인들의 개인 행적과 함께 그들의 교류활동도 구체적으로 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류는 학교, 성별, 잡지, 출신 지역 등 실로 다양한 종류의 구심점을 갖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조명하고 복원해야 할 사실과 기억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성북구의 문인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크게 일별하였습니다만,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각각의 활동 양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내러티브 전공교수이다. 고려대학교에서 현대문학/소설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상허학회 총무이사, 한국여성문학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상허학보 편집위원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전후 문학 장의 형성과 문예지>, <해방이라는 한국문학의 경계와 이태준> 등이 있다.



우리 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이사, move into somewhere〉: 고사리 작가

- 사라지고, 살아가고

차정미

100년 된 채동선 가옥을 만나다

작년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찾집 마로다연을 찾다가 들어선 골목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집을 발견했다. 담장 너머로 본 그곳은 마치 작은 숲처럼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사이로 넓은 마당과 일본식 양옥이 보였다. 성북동에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긴 대체 어떤 곳일까?

지난 2월, 고사리 작가가 성북동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시하게 될 곳으로 찾아가보니, 내가 궁금해 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이 집은 일명 ‘채동선 가옥’으로 알려져 있다. 가곡 ‘고향’의 작곡가 채동선이 1930년대에 성북동에서 살았을 때의 집이라고 한다. 그는 정지용의 시 8편에 곡을 붙여 가곡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채동선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183의 17’을 통해 처음 그를 알게 되었는데, 이 집이 그가 살던 집이라니 또 한 번 놀랐다.

채동선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당시 큰 부자였던 아버지가 손을 써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했고, 일제의 압박 속에서 잠깐 음악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러다 6.25 전쟁 때 피난 간 부산에서 죽었다. 그 이후 성북동 집도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2006년부터는 빈집으로 있다고 한다.

고사리 작가의 두 번째 〈이사〉 프로젝트

고사리 작가는 〈이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빈집을 비닐로 감싸는 설치작업으로 작년에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철거를 앞둔 가정집(강서구 등촌동)에서 전시를 했다. 두 번째 〈이사〉프로젝트는 성북동183-17(채동선 가옥)에서 3월31일부터 4월15일(연장되어 30일)까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이사〉는 공간이 가지는 사유와 소유의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사〉는 곧 재건축으로 사라질 집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번 두 번째 〈이사〉는 비어있는 채로 오래된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집은 10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이며, 12년간 멈춰진 시간을 간직해 온 집이에요. 누구라도 마음을 내어줄 만큼 멋진 곳입니다.”

〈이사〉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

고사리 작가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전시를 준비했다. 집 안과 마당을 치우고, 비닐로 집을 싸기 시작했다. 2층집과 문간방까지 그 큰 공간에 천장과 바닥은 물론 전선줄, 문고리 하나하나 모두 비닐로 감쌌다. 참 힘겨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이사〉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 되었을까.

“작년, 우연히 곧 재건축이 이루어질 가정집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집에는 얼마 전까지 한 가족이 살고 있었고, 가족들이 떠나고 없는 빈 집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고스란히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공간은 한 달 뒤면 사라질, 죽을 날을 받아둔 상황이었지요. 그 만남은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집에 대한 수많은 관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작가의 어머니는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다. 작가는 유년시절을 여인숙 다락방에서 보냈다. 그 집은 작가와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자, 어느 누구의 집이기도 했다. 건축가인 작가의 아버지는 물건을 모으는 ‘저장강박증’이 있어, 생활이 불편할 만큼 집안을 물건으로 가득 채웠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곧 사라질 집을 만났을 때 작가는 여러 감정이 들었고, 이것이 곧 작업으로 이어졌다.

작가는 왜 비닐 소재를 골랐을까

공간을 겹겹이 씌 비닐은 바람에 나부끼기도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바스락 소리도 낸다. 비닐은 다양한 감각으로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2009년부터 1년 반 동안 집에서 생겨나는 쓰레기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어요. 비닐에 무언가를 담아 보관하는 행위에서 현 시대의 소유 방식을 짐작해 볼 수 있었지요. 사소하고도 중요한 무언가를 비닐에 담아



보관하듯, 그 집에서 느끼는 기억과 감정들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집을 비닐로 싸맸다고 볼 수 있어요.”

작가는 한 관람객의 이야기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이번 전시 때 두 차례 방문해 주신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은 전시를 보고 집에 돌아가 집안에 있는 모든 비닐들을 한곳에 모아 보았대요. 필요로 인해 구입하기도 하고, 편리함 때문에 물건을 비닐에 담았는데 기억조차 못하는 것들이 많아 놀라셨나 봐요. 비닐 안에 남겨진 물건처럼 마음 안에 꺼내지 못한 말들 역시 많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후 그 마음을 하나씩 꺼내어 가까운 분들께 건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관람객은 비닐에 담겨진 것들을 통해 마음까지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작가에게는 이 말이 큰 선물이었을 것이다.



나처럼 전시 덕분에 이 공간을 알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 긴 시간 이 골목에서 사진 분, 우연히 지나치다가 들른 분, 신나게 마당에서 뛰어놀다 간 꼬마 아이들, 불편함에 선뜻 전시장에 발붙이기 어려워했던 분들까지. 작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집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

맑을 때, 흐릴 때,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전시하는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전시장의 모습을 보는 건 어땠을까.

“12년 간 비어있던 집은 사람이 살지 않았을 뿐, 먼지와 곰팡이, 부서진 가구와 내려앉은 천장들은 그곳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방치된 것들의 모습이 아닌 존재 자체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비닐로 인해 더 가깝게 다가가 들여다보고 만져보면서. 바람이 내는 소리와 내 걸음소리가 비닐을 통해 나뉘듯이 집과 내가 함께 살아있음을 느낄 수도 있지요.”

살아있는 고향집

전시 <이사>를 보면서 얼마 전 헐린 고향집이 떠올랐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지은 한옥 집으로 70년이 넘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다. 안타깝게 도시계획에 따라 허물어졌지만. 지난 2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을 때 지붕은 뜯겨졌고 문은 부서져 있었으며, 마루와 안방, 마당에는 흙더미와 쓰레기가 한데 엉켜 있었다. 누가 봐도 황폐한 집이었지만 내 눈에는 우리 가족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뜯겨진 집이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마당 담벼락에 걸려있던 옥수수, 제비가 앉아있던 전선, 쪽마루를 덮고 드나들었던 다락방, 할머니가 오강을 부시던 우물가, 어머니가 화장품을 두었던 부엌 찬장,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친구에게 받았던 거울… 내가 살았던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

물의 이름이 이렇듯 길어진다. 나는 사라진 공간을 떠올리고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이 전시는 사람이 떠나간 공간을 위로하는 것 같다. 공간을 위로한다는 것은 공간과 사람이 서로에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건 아닐까? 내가 살았던, 살아갈, 그곳을 떠올려보면서.

공간에게 위로를 받은 내가, 공간을 위로하는 이곳에서 다시 고향집을 부른다. 공간이 먼저 사라지든, 다른 공간으로 내가 먼저 사라지든, 내가 살았던 공간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집이 없어져도 여전히 마음엔 그 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살아가고 있다. ㉮

-

차정미는 산을 곁에 두고 싶어서 성북동으로 왔다.
시를 좋아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꾼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디자인된 커피를 파는 카페, 디터틀입니다

박병찬

안녕하세요, 디터틀입니다

이제 세 번의 겨울을 지내고 다시 여름을 맞이하는 디터틀은 한가로운 성북동에서도 가장 한적한 골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처음 오시는 손님들이 “언제 생겼어요?” 하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정말 한적한 곳에 숨어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커피가 맛있어 꼭 다시 오겠다는 손님의 한 마디에, 힘겹지만 그래도 버텨왔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날도 꽤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 골목

에 사시는 분들의 걱정스런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추웠던 첫 번째 겨울, 우리 부부 말고는 골목을 오가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추운 날들을 지나 이제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며, 이 조용하던 골목에 저희를 보고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음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디터틀이 무슨 뜻이냐고요?

손님들 중에서도 가끔은 저희 이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름이 특이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니 어찌면 카페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를지기 카페 이름이라면 좀 멋진 단어나 영어 외의 외래어로 짓거나, 요즈음에는 옛날 생각이 나는 이름으로 좀 더 멋들어지게 쓰는데 디터틀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 ‘터틀’과 생략된 문자 ‘디’로 이루어져 있으니 보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수상한 이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디터틀은, 저의 커피일의 시작이 더치커피 공방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더치커피의 ‘D’와 그 추출의 과정에 잘 어울리는 ‘turtle’ - 사연을 알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합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있기는 합니다. 일단 ‘터틀’은 제 별명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는 별로 답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별명을 따라 점점 비슷해졌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금방 알아차리시곤 합니다.

사실 이 이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담긴 부분은 ‘D’입니다. 가장 먼저는, 위에 쓴 것처럼 ‘Dutch’에서 따온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하게 된 이유이자 카페를 열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커피를 팔기 전에 한참동안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공부라는 것이 잠과는 거리가 먼 분야이고 그 와중에도 정신은 또렷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 시절 저는 커피

카페 디터플로



를 엄청 많이 마셨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더블샷, 그게 없었다면 당시를 어찌 버텼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할까요.

그러던 중에 더치커피라는, 처음 보는 메뉴를 마셔보고는 제 커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스로 마시면 향이 죽는 핸드드립과는 달리 향이 가득한 아이스커피. 그래서 그 추출 과정을 살펴보고 이곳저곳에 가서 마셔보고 검색해보고 느낀 것은 ‘지금 팔리는 더치는 제대로 자기 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치커피라는 개념조차 생소해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그 시절에 추출 기구를 만들어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시고 남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이 맛있다고 팔아보기를 권유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시작한 것이 더치커피 공방 ‘디터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셔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는 손님들의 문의에 답하고자 문을 열게 된 곳이 ‘까페 디터틀’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뜻도 명확해야 좋다는데 저는 미련이 많은 사람인지 이름 짓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D’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고 유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The’의 다른 발음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로 결실을 맺지 못해 가지지 못한 이름 ‘Ph.D’의 ‘D’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signed coffee’의 ‘D’이기도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추출되고 습관적으로 서빙되고 마셔지는 커피가 아니라 추출단계에서부터 잘 디자인되고 그것이 서빙될 때도 잔이나 식기, 부재료, 마시는 방법까지 그에 맞춰져있는 커피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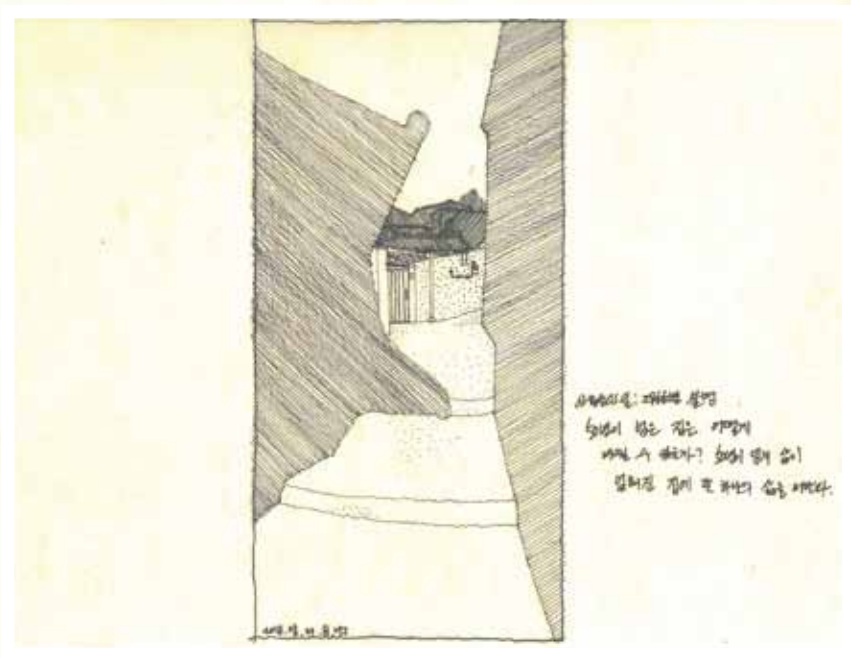
어렸을 때부터 워낙 수줍음이 많아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성격이었던 제가 카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주변에 아

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공부를 다 마치고 - 오랜 후이기는 했지만 - 한 번 정도는 카페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한 카페는 인문학이 살아있는 카페였습니다. 입구에는 고서점처럼 책이 가득 꽂혀있고, 그 책에는 읽은 사람들의 생각이 적혀있는 책갈피가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와 가끔은 그 책을 읽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 디터틀이 그런 카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매어있다 보니 여러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 나누는 곳이 필요할 때, 혹은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하고 싶을 때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이 늘 마음 같지 않고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성북동에서 어디 갈까? 하고 고민할 때 생각나는 곳, 마음 편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활용해 주세요. ☎

-

박병찬은 선잠단지 옆 성북로 18길에 위치한 작은 카페 디터틀을 운영하고 있다.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남다른 시선
사용승인 불명

이준호

50년이 넘는 집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50년이 넘게 삶이 얹혀진 집에 또 하나의 삶을 더한다.

—
이준호(건축그룹[tam] 대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작은 건축을 하기 위해 독립한 젊은 건축가다. 성북동을 좋아해 아예 자리를 잡았다. 성북동천과 연이 닿아 건축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북동에 자리한지 3년만에 성북동에 첫 프로젝트 시작하려고 한다.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장영철

3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성북동천의 살림꾼 김기민 총무에게서 전화가 와 올해는 내가 편집위원장을 맡아야 할 차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편집위원장 일을 차례로 맡았으면 한다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성북동에 머물지도, 근무지를 두지도 않은 내가 편집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간 생각할 시간을 얻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대부분의 편집위원들이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의 편집위원장을 거쳐갔고, 특히 전임자의 경우 꽤 오랜 기간 편집위원장의 소임을 맡아왔기에 조금이나마 짐을 나누어지겠다는 마음으로 편집위원장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전 편집위원장 기민 씨는 총무를 맡아 그 역할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요. 항상 애써주시는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성북동천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3년 창간호에 몇 가지 지역 축제 정보를 제공하면서부터였습니다. 몇 차례를 제외하고 꽤 꾸준히 참여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11호가 출간되기까지에 이르렀지만 이 마을 잡지를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북동을 좋아하고 자주 찾지만,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고 관망하던 저 자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로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도 6년이란 세월의 무게가 쌓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오래전 정취를 간직해 줄 것만 같았던 골목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찾아오면 시간을 거슬러 느릿느릿 여유를 주던 성북동도 어느덧 변화라는 흐름에 가속이 붙는 듯합니다.

마을잡지 본연의 기능에 ‘기록’이란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 성북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북동이 지켜왔던 오래된 멋과 기품을 찾아 발굴하는 역할을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가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11호를 발행에 즈음하여 생각하니, 이제는 때가 되면 당연히 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성북동 마을잡지가 된 것만 같습니다. 의무로 발행하는 잡지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은 편집위원들의 노고를 비롯해 원고 청탁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기고자분들의 성북동 사랑이 아니라면 이렇게 꾸준히 발간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북동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기억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성북동 마을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11호가 나왔습니다. 당연은 필연인데 12호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다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때 뵙겠습니다. 

-
장영철은 본지 편집위원으로 올해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오래 전부터 성북동에 애정을 갖고 공부 모임을 열기도 했으며, 성북동의 문화와 주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 휴일이면 성북동의 골목 곳곳을 둘러보는 것을 재미로 느끼는 진정한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북동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을 중심으로 17717, 건축그룹[tam], 동네공간, 성북디미방 등 동네 가게와 공간, 마을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및 예술인, 지역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주민모임입니다.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간행, 마을여행, 문화·예술 행사 또는 프로그램 기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 학습모임 구성, 지역 의제 발굴 및 동네 현안을 다루는 공론장 마련,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과의 교류 및 관계형성, 민간 협력 및 민관 거버넌스 참여 등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 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

- 희망제작소 주관 성북동마을학교 참여자 중심으로 모임 조직 (2013. 2~5월)
- 단체 설립 (2013. 5월)
-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013~2014) : 마을잡지 창간호 간행, 마을 사진전 개최, 마을학교 운영, 마을여행 진행
-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공동체 희망사업 (2014) : 마을잡지 4호 특집호 간행
-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2014~현재) : 마을잡지 2~3호, 5~10호 간행
- 성북구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민관협력회의 참여자 (2016~현재)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 (2016. 9월~현재)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사무처 운영담당 겸 운영위원회 간사 (2017. 6월~현재)
-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단 컨소시엄 참여 (2017. 7월~현재)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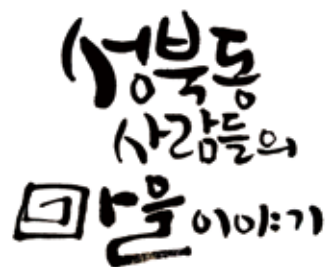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성북동천 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거주지/생활동		
		성북동 그 외		
관심 분야	마을잡자	마을여행	문화·예술	체육·학습
	내가 직접 기획하고 싶어요		준비된 행사/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지역 의제	동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 의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나가거나 참여해보고 싶어요		
	기 타			
회원 구분	정 회원	매월권, 선거권/피선거권을 갖고 단체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월 5,000원의 회비 납부와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필수입니다.		
	후원회원	성북동천의 활동에 후원적으로 초대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금전 지원과 제능 참여로 단체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의사항!	참가 본인은 성북동천의 정회원 후원회원 으로 가입 의사를 밝히며, 회원으로서 단체 정관과 규약, 규정 등 제반 규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북동천 활동 및 회원 관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안내사항	성북동천은 범정부/지방 거버넌스체계가 아니며, 성북동 기반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주단원이 설립한 비영리(민식)단체로서 거버넌스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비 출금은 CMS 양식이 아닌 회원 개인이 본인 계좌에서 회비 납부계좌로 자금융에 출금 신청을 하거나 계좌 이체, 정기 모금 시 현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주시는 합니다.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6 - 901 - 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20 년 월 일

가입신청자 (남성/여성)

성 북 동 천 귀하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11호 <비매품>

2018년 7월 19일 발행

상임 편집위원 | 김기민 김철우 박진하 장영철 차정미 최성수
비상임 편집위원 | 김현주 오예주
교정·교열 | 최나현

디자인 | 17717 김선문

펴낸곳 | 성북동천
기획·편집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지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동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동네공간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070. 8871. 5998